

위대한 신 판

The Great God Pan

아서 머친 (Arthur Machen) (1863-1947)

1894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2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아서 머친 (Arthur Machen), "The Great God Pan" (John Lane 1894)

저자

아서 머친 (Arthur Machen) (1863-194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389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Qwen3.6-35B-A3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2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서 머친

목차

제1장 실험 제2장 클라크의 회고록 제3장 부활의 도시 제4장 폴 거
리에서의 발견 제5장 충고의 편지 제6장 자살자들 제7장 소호에서의
조우 제8장 단편들

I. 실험

“클라크, 네가 와 주어서 정말 기쁘다. 정말로. 네가 시간을 낼 수 있
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저는 며칠 동안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은 별일도 없으니
가요. 하지만 레이먼드 박사, 혹시라도 불안한 점은 없나요? 정말로 절
대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건가요?”

두 남자는 레이먼드 박사 집 앞 테라스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해
는 아직 서쪽 산맥 위에 걸려 있었지만, 그 빛은 흐릿한 붉은 기운으로
그림자 하나 드리우지 못했다. 공기 전체가 고요했다. 언덕 위의 거대
한 숲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스며들었고, 그 틈을 타 가끔씩 들 비둘기
의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쪽, 길고 아름다운 계곡에는 강이 외로운 언덕 사이로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머물렀가 사라지자, 희고 순수한 안개
가 언덕 위로 서서히 피어올랐다. 레이먼드 박사는 갑자기 친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안전하죠? 물론이죠. 수술 자체는 아주 간단한 절차예요. 어떤 외과 의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다른 어떤 단계에서도 위험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물리적인 위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클라크, 당신은 늘 겁이 많죠. 정말 늘 그래요. 하지만 제 역사를 아시잖아요. 저는 지난 스무 해 동안 초월 의학에 전념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기꾼, 미신쟁이, 속임수꾼이라 불렀지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 해 전, 저는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했고, 그 이후로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을 위한 준비를 매일처럼 해 왔습니다.”

“저도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클라크는 눈썹을 찌푸리며 레이먼드 박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레이먼드, 당신의 이론이 환상 같은 것은 아닌지, 확신하십니까? 물론 그 비전은 훌륭하지만, 결국에는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지는 않은가요?”

레이먼드 박사는 거닐던 걸음을 멈추고 날카롭게 몸을 돌렸다. 그는 중년의 사내로, 야위고 마른 체격이었다. 얼굴빛은 창백한 누런빛이 돌았지만, 클라크에게 답하며 그를 마주했을 땐 볼에 붉은 기운이 돌았다.

"클라크, 주위를 둘러봐. 너는 산을 보고, 파도처럼 이어지는 언덕들을 본다. 너는 숲과 과수원, 익어가는 옥수수 들판, 그리고 강가의 갈대밭까지 닿는 초원을 본다. 너는 내 옆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내 목소

리를 듣는다. 하지만 내가 말하마. 이 모든 것들—하늘에서 막 빛나기 시작한 저 별부터 우리 발밑의 단단한 땅까지—은 꿈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진짜 세계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진짜 세계는 존재해. 하지만 그것은 이 환영과 환시 너머에 있어. '아라스 용단 속의 추격, 질주 속의 꿈들' 너머에, 그 모든 것 너머에, 한 장의 베일 너머에.

어떤 인간이 그 베일을 들어 올린 적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클라크,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오늘 밤 우리가 그 베일이 다른 이의 눈앞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사실이야. 너는 이것을 모두 기묘한 헛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기묘할 수는 있지만, 진실이야. 그리고 고대인들은 그 베일을 들어 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지. 그들은 그것을 판 신을 보는 것이라고 불렀어."

클라크는 오싹했다. 강 위에 피어오르는 하얀 안개가 차가웠기 때문이다.

"정말 경이롭군요." 그가 말했다. "레이먼드,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이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 칼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네, 아주 미세한 병변이 있을 뿐입니다. 회백질에 생긴 작은 변화죠. 특정 세포들의 사소한 재배열, 현미경으로나 겨우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변화입니다. 이 정도라면 백 명의 신경 전문의 중 아흔아홉은 눈치조차 채지 못할 것입니다.

클라크, 당신에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아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난 매우 난해해 보이는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마구 늘어놓게 될 테고, 그것은 당신에게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신문의 구석진 지면에서, 대충이나마 읽어 보셨을 겁니다. 최근 뇌 생리학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기사요. 며칠 전 디그비의 이론과 브라운 파버의 발견에 관한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론과 발견!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 저는 십오 년 전부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십오 년 동안 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십 년 전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을 때 언급했던 그 발견이 바로 오 년 전 제가 해낸 것입니다. 수년간의 노고, 수년간 어둠 속을 더듬으며 고군분투한 시간, 그리고 실망과 때로는 절망으로 지센 낮과 밤들 속에서, 저는 때때로 떨며 차가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혹시 저 말고도 다른 이들이 제가 찾고 있는 것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토록 오랜 기다림 끝에 갑작스러운 기쁨의 전율이 제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긴 여정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당시에든, 지금도 우연으로 여겨지는 일이지만, 한순간의 무심한 생각이 이미 백 번 넘게 답습해 온 익숙한 선과 길들을 따라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위대한 진리가 제게 쏟아져 내려왔고, 저는 시야의 선들로 그려진 한 세계, 알려지지 않은 한 구역을 보았습니다. 대륙과 섬

들, 그리고 인간이 처음으로 눈을 들어 해와 하늘의 별, 그리고 고요한 땅을 바라본 이후로 (제가 믿는 한) 배 한 척도 항해한 적이 없는 거대한 바다들 말입니다.

클라크, 이 모든 것이 과장된 수사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암시하는 바를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언어로 풀어낼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이 세계는 이제 전신선과 케이블로 거의 둘러싸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느린 속도로, 사상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바다와 사막을 가로질러 번쩍번쩍 날아갑니다. 만약 오늘날의 전기공학자가 갑자기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신과 동료들이 단지 자갈을 가지고 놀면서 그것을 세계의 기초로 오해하고 있었을 뿐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전류 앞에 우주 끝까지의 공간이 열려 있는 것을 본다면, 인간의 말이 해를 향해, 또 해 너머의 천체계들까지 번쩍이며 날아가고, 또렷이 말하는 인간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사상을 경계 짓는 공허한 공간에 메아리치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비유로서는 이것이 제가 해낸 일의 꽤나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느 저녁 제가 여기 서서 느꼈던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은 여름 저녁이었고, 계곡은 지금과 거의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 서서, 두 세계, 즉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 사이에 깊이 입을 벌리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심연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멀리 희미하게 펼쳐진 거대한 공허를 보았고,

그 순간 빛의 다리가 땅에서 미지의 해안으로 뛰어올라 그 심연을 가로 질렀습니다.

원한다면 브라운 파버의 책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과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뇌의 특정 신경 세포 군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그 기능을 특정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세포 군은 마치 '임대 중'인 땅과 같습니다. 공상적인 이론들을 위한 황무지일 뿐이죠.

하지만 저는 브라운 파버나 다른 전문가들과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사물의 체계 안에서 그 신경 중추들이 가질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접촉으로 저는 그것들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접촉으로, 말입니다. 한 번의 접촉으로 전류를 풀어 놓을 수 있고, 한 번의 접촉으로 이 감각의 세계와 — 그 문장은 나중에 마저 끝낼 수 있겠지요 — 사이의 통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칼이 무엇을 성취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감각이라는 단단한 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간이 창조된 이후 처음으로, 한 영혼이 영혼의 세계를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클라크, 메리가 판 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써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저는 그녀가 — 라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나머지 말을 의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저를 믿어 주세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레이먼드 박사, 이 일을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이는 지대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만약 잘못되면, 당신은 남은 생을 불행하게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최악의 일이 벌어진다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의 메리를 거리에서, 그리고 거의 틀림없이 굶어 죽었을 처지에서 건져 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제 것이며, 제가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레이먼드 박사가 길을 이끌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을 지나,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내려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무거운 문을 열고는 클라크에게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곳은 한때 당구장으로 쓰이던 방으로, 천장 한가운데에 난 유리 돔으로 빛이 들어왔다. 박사가 두꺼운 것이 달린 램프에 불을 붙여 방 한가운데 놓인 책상 위에 올려놓는 동안에도, 그 돔에서는 여전히 슬픈 회색 빛이 박사의 형체 위로 내려와 비치고 있었다.

클라크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면은 거의 한 뼘도 빈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사방으로 선반이 둘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모양과 색이 제각각인 병과 작은 약병들이 가득 얹혀 있었다. 한쪽 끝에는 작은 치펜데일풍 책장이 서 있었다. 레이먼드가 그것을 가리켰다.

“오스왈드 크롤리우스가 쓴 이 양피지, 보이시죠? 그이가 저에게 그 길을 처음 열어준 인물입니다. 비록 본인이 그 길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요. 그이에게는 이런 기묘한 말이 있습니다. ‘밀알 하나하나 속에 별의 영혼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실험실에는 가구가 많지 않았다. 한가운데 놓인 탁자—한쪽 구석에 배수구가 있는 돌판—와 레이먼드와 클라크가 앉아 있는 두 개의 팔걸이의자가 전부였다. 다만 방 끝자락에 묘한 생김새의 의자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클라크는 그 의자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네, 저 의자입니다.” 레이먼드 박사가 말했다. “적당한 자리에 놓아 두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불빛 쪽으로 굴러 갔다. 그리고 레버를 조작하며 의자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좌석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등받이를 여러 각도로 기울였으며, 발받침도 맞추었다. 의자는 꽤 편안해 보였다. 클라크는 박사가 레버를 다루는 사이, 부드럽고 푸른 벨벳 표면을 손으로 쓸어주었다.

“자, 클라크. 편하게 앉으시오. 제가 할 일이 몇 시간 남아 있소. 중요한 일들을 마지막까지 미뤄둔 셈이요.”

레이먼드는 돌판 쪽으로 걸어갔다. 클라크는 지친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레이먼드는 일렬로 늘어놓은 작은 병들 앞에 몸을 굽히고, 도가니 아래에 불을 붙였다.

박사에게는 작은 손등이 있었다. 그것은 큰 등불처럼 가림막이 씌워진 채, 실험 장치 위 선반에 놓여 있었다. 그림자 속에 앉아 있던 클라크는 거대하고 어스름한 방을 내려다보며, 선명한 빛과 모호한 어둠이 서로 대비되어 만들어내는 기묘한 효과에 신기해했다.

곧 그는 방 안의 이상한 냄새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냄새의 기미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점점 뚜렷해지자, 클라크는 약국이나 진료소의 냄새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다. 클라크는 그 감각을 분석하려 무심코 애썼다. 반쯤 의식이 흐려진 채, 그는 십오 년 전의 어느 날—자신의 집 근처 숲과 초원을 거닐며 보냈던 그날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8월 초의 무더운 낮이었다. 열기는 모든 사물의 윤곽과 거리를 희미한 안개처럼 흐릿하게 만들었다. 온도계를 살펴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수치를 이야기했고, 거의 열대 기후에 가까운 기온을 언급했다.

기이하게도, 1850년대의 그 놀랍도록 더웠던 날이 클라크의 상상 속에 다시 떠올랐다. 눈부시고 모든 곳에 스며드는 햇살의 감각은 실험실의 그림자와 빛을 모두 가려버리는 듯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뜨거운 공기가 얼굴 위로 확확 부딪쳐 오는 것을 느꼈고, 잔디밭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았으며, 여름의 무수한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

“냄새가 당신에게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네, 클라크. 유해한 것은 하나도 없지. 단지 조금 졸리게 만들 뿐이야.”

클라크는 그 말들을 또렷이 들었다. 레이먼드 박사가 자신에게 말을 건넨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 무기력함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십오 년 전, 그가 홀로 걸었던 그 외로운 산책길만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들판과 숲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순간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선명한 빛 속에서 한 장의 그림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특히 그의 콧속으로 흘러든 것은 여름의 향기였다. 뒤섞인 꽃들의 향, 숲의 냄새, 푸른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서늘하고 그늘진 곳들의 향기가 태양의 열기에 의해 끌려 나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한 것은, 팔을 벌리고 미소 짓는 듯한 자세로 누워 있는 그 좋은 흙의 냄새였다.

그의 환상은 그를 오래전처럼 들판에서 숲으로 이끌었다. 너도밤나무의 빛나는 덤불 사이로 난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며. 석회암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꿈속에서 맑은 선율처럼 울렸다.

생각들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다른 생각들과 뒤섞였다. 너도밤나무 가로수 길은 호랑가시나무 사이로 난 길로 변했고, 여기저기서 포도덩굴이 가지에서 가지로 기어올라 흔들리는 덩굴손을 뻗치고 보라색 포도송이를 늘어뜨렸다. 야생 올리브나무의 듽성한 회녹색 잎들은 호랑가시나무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도드라져 보였다.

꿈의 깊은 주름 속에 잠긴 클라크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어진 그 길이 자신을 미지의 땅으로 데려갔음을 의식했다. 그는 그 모든 기이함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여름의 뽕뽕거림과 수군거림 대신 무한한 정적이 모든 사물에 내려앉는 듯했다. 숲은 고요해졌고, 한순간 그는 인간도 짐승도,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그러나 모든 것이 섞인, 모든 사물의 형상이면서도 일체의 형체가 없는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 섰다.

그 순간, 육체와 영혼의 성례는 해체되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여기를 떠나자”라고 외치는 듯했다. 그 뒤에는 별들 너머의 어둠, 영원의 어둠이 펼쳐졌다.

클라크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레이먼드 박사가 기름진 듯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 액체는 녹색 병 속으로 들어갔다. 박사는 병 마개를 단단히 막았다.

“잠드셨군요.” 그가 말했다. “여행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메리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십 분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클라크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방금 한 꿈에서 다른 꿈으로 넘어온 것 같았다. 실험실의 벽이 녹아 사라지고, 자신은 런던에서 깨어나 자신의 잠결 환상에 몸서리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마침내 문이 열렸고, 박사가 돌아왔다. 그 뒤로 약 열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온통 하얀 옷을 입고 있

었다. 그녀가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클라크는 박사가 편지에 적었던 말에 더 이상 의아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과 목, 팔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레이먼드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메리, 때가 됐소. 당신은 이제 완전히 자유롭소. 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겠소?”

“네, 여보.”

“들었지요, 클라크? 당신이 내 증인이오. 여기 의자가 있소, 메리. 어렵지 않소. 그냥 앉아 등을 기대기만 하면 되오. 준비됐소?”

“네, 여보. 충분히 준비됐어요. 시작하기 전에 키스해 주세요.”

박사는 몸을 굽혀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소녀는 피곤해하며 잠을 갈망하듯 눈꺼풀을 내렸다. 레이먼드 박사는 녹색 병을 그녀의 코밑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은 드레스보다 더 희어졌다. 그녀는 약하게 몸부림쳤으나, 이내 깊은 복종감이 밀려오자 어린아이가 기도하기 전처럼 두 팔을 가슴에 겹쳐 놓았다.

램프의 밝은 빛이 그녀를 정통으로 비추었다. 클라크는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가는 변화들을 지켜보았다. 여름 구름이 해를 가로질러 흘러갈 때 언덕의 빛이 변하듯, 그녀의 얼굴도 순간순간 달라졌다.

그리고 그녀는 하얗고 고요하게 누웠다. 박사는 그녀의 눈꺼풀 한쪽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레이먼드는 레버 중 하나를 힘껏 눌렀고, 의자가 즉시 뒤로 기울어졌다. 클라크는 박사가 그녀의 머리에서 수도사의 삭발 자리처럼 둥근 원형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을 보았다. 램프가 더 가까이 옮겨졌다. 레이먼드는 작은 상자에서 빛나는 작은 기구를 꺼냈고, 클라크는 몸서리치며 시선을 돌렸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박사는 자신이 낸 상처를 감싸 매고 있었다.

“오 분 뒤면 깨어날 거예요.” 레이먼드 박사는 여전히 차분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들은 느리고 무겁게 췌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복도에는 오래된 시계가 하나 있었다. 클라크는 어지럽고 기절할 것 같았다. 무릎이 떨려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지켜보는 사이, 갑자기 길게 끌리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던 혈색이 소녀의 뺨에 돌아왔고, 그녀의 눈이 번쩍 떠졌다.

클라크는 그 눈빛 앞에서 움츠러들었다. 두 눈동자는 끔찍한 빛을 발하며 아득히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커다란 경이와 스쳤고, 두 손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지려는 듯 뻗어 나갔다.

하지만 순식간이었다. 경이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장 끔찍한 공포가 차지했다. 그녀의 얼굴 근육은 흥측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떨렸다. 영혼이 육체의 집 안에서 몸부림치며 전을 하는 것 같았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클라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삼일 후, 레이먼드 박사는 클라크를 메리의 침대 곁으로 데려갔다.

메리는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굴리며, 공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의사는 여전히 냉정하게 말했다. “참으로 큰 일입니다. 그녀는 치료가 불가능한 광인이 되어 버렸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위대한 신 판을 목격했으니까요.”

II. 클라크 씨의 회고록

레이먼드 박사가 판 신의 기이한 실험을 목격할 증인으로 선택한 클라크 씨는, 신중함과 호기심이 묘하게 섞인 인물이었다. 평소에는 기이하고 비범한 것을 숨김없이 혐오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인간의 본성에 숨겨진 더욱 신비하고 내밀한 요소들에 대해 눈동자를 크게 뜨고 탐구하려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후자의 경향이 그를 레이먼드의 초대에 응하도록 이끌었다. 비록 그의 이성이 의사의 이론을 가장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일축해 왔지만, 그는 속으로 공상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믿음이 확인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을 것이다.

그가 음울한 실험실에서 목격한 공포는 어느 정도 유익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리 뒤틀리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그 후 수년 동안 그는 평범한 일상에 굳건히 매달리며 모든 초자연적 탐구의 기회를 거부했다. 실제로 어떤 동종 요법의 원리에 따라, 그는 한동안 저명한 영매들의 강령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신사들의 서투른 속임수가 그를 모든 종류의 신비주의에 완전히 혐오를 느끼게 만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치료법은 자극적일지언정 효험은 없었다.

클라크는 자신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알 수 없는 공포에 떨며 경련하던 메리의 얼굴이 서서히 그의 기억에서 지워짐에 따라, 옛 열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종일 진지하고 수익성 있는 일로 바쁜 그는, 저녁에 휴식을 취하려는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로가 아담한 독신자의 방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팔꿈치 곁에는 고급 클라레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가 소화된 후, 그는 잠시나마 저녁 신문을 읽는 체했지만, 뉴스의 나열은 곧 그를 지루하게 만들었고, 클라크는 난로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놓인 오래된 일본산 서랍장 쪽으로 뜨거운 욕망의 시선을 던지곤 했다.

잼 찬장 앞에 선 아이처럼, 그는 몇 분 동안 망설이며 머뭇거렸지만, 욕망은 항상 우위를 점했다. 결국 클라크는 의자를 끌어당기고 촛불을 켜 뒤 서랍장 앞에 앉았다.

그곳의 칸과 서랍에는 가장 음울하고 병적인 주제에 관한 문서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안쪽 깊은 곳에는 방대한 원고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그가 애써 수집한 보석 같은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클라크는 출판된 문학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가장 유령 같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인쇄된 것이라면 그의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그가 ‘마귀의 존재를 증명하는 회고록’이라 부르는 것을 읽고, 편찬하고, 재배열하는 데 있었다. 이 일에 몰두할 때, 저녁은 날아갈 듯 빠르게 지나갔고, 밤은 너무 짧게 느껴졌다.

특정한 어느 저녁, 유난히 추웠던 12월의 밤이었다. 짙은 안개와 날카로운 서리가 세상을 검게 뒤덮고 있었다. 클라크는 서둘러 저녁을 먹어 치웠다.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의식조차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방 안을 두세 번 오가며 걸었다. 그러다 서랍장을 열고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잠시 후 그는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댔다. 그는 흔히 빠지던 몽환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침내 그는 책을 꺼내 마지막 기록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페이지는 클라크의 둥글고 정교한 필체로 뾰뾰하게 채워져 있었다. 맨 처음에는 조금 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친구인 필립스 박사가 들려준 기이한 이야기다. 그는 이 안에 기록된 모든 사실이 엄격하고도 완전히 진실이라고 단언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성씨나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거절했다.

클라크는 그 기록을 열 번째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친구가 들려줄 때 적어 두었던 연필 메모를 가끔씩 흘끔거렸다. 그는 특유의 취미처럼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자랑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곤 했다. 그는 자신의 문체에 만족했고, 사건들을 극적인 순서로 배열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이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헬렌 V., 레이첼 M., 그리고 트레버 W.다. 헬렌 V.는 아직 살아 있다면 지금 스물세 살쯤 되었을 것이다. 레이첼 M.은 이미 죽었으며, 헬렌보다 한 살 어렸다. 트레버 W.는 열 여덟 살의 정신 박약자였다.

이들 세 사람은 이야기 당시 웨일스 접경의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로마 점령기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지녔던 곳이지만, 지금은 인구가 오백 명도 채 되지 않는 흩어진 작은 촌락이다. 마을은 경사진 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다로부터 약 육 마일 떨어져 있다. 또한 크고 풍치 좋은 숲이 마을을 둘러싸 비바람을 막아주고 있다.

열한 해쯤 전, 헬렌 V.는 꽤 특이한 사정 속에서 이 마을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아였으며, 어릴 적 먼 친척에게 입양되어, 그 친척의 집에서 열두 살이 될 때까지 자랐다고 한다. 하지만 그 친척은 아이가 또래와 어울리는 편이 더 나으리라 여겨, 안락한 농가에 열두 살 소녀를 맡길 좋은 가정을 구한다는 광고를 여러 지역 신문에 냈다. 그리고 그 광

고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앞서 언급한 마을에 사는 부유한 농부 R 씨였다.

R 씨의 신원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자, 그 친척은 입양한 딸을 R 씨에게 보내며 편지 한 통을 함께 부쳤다. 편지에는 소녀가 혼자 쓸 방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교육 문제로 보호자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도 적혀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삶의 자리에 비추어 이미 충분히 교육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실 R 씨는, 소녀가 스스로 할 일을 찾고 거의 자기 좋을 대로 시간을 보내도록 두라는 뜻으로 그 편지를 이해했다.

R 씨는 자신의 집에서 7마일 떨어진 가장 가까운 역이 있는 읍에서 그녀를 맞았고, 그녀가 자신의 과거 삶과 입양아버지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는 점 외에는 그 아이에게서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그녀는 마을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고 맑은 올리브빛이었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며, 어딘가 이국적인 인상이 있었다.

그녀는 농가 생활에 쉽게 적응한 듯했고,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아이들은 때때로 그녀와 함께 숲을 거닐었다. 숲 산책이 그녀의 즐길거리였기 때문이다. R 씨에 따르면, 그녀가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친 직후 혼자 숲으로 나가 해가 진 뒤에야 돌아오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어린 소녀가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다니는 것이 불안해진 그는 그녀의 입양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신은 짧은 메모로, 헬렌은 원하는 대로 하게 두라는 내용이었다.

겨울이 되어 숲의 길이 막혀 버리면,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침실에서 보냈고, 친척의 지시대로 혼자 잠을 잤다.

이 소녀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 중 첫 번째는 그러한 숲 산책 중 하나에서 일어났으며, 그녀가 마을에 온 지 약 1년 뒤의 일이었다. 직전 겨울은 유난히 혹독해서, 눈은 깊게 쌓였고, 서리는 전례 없이 긴 기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여름은 극심한 더위로 주목할 만했다.

그 여름 가장 더운 날 중 하루, 헬렌 V는 평소처럼 점심으로 빵과 고기를 챙겨 농가를 나서 숲으로 긴 산책을 떠났다. 들판에서 일하던 몇몇 남자들은 그녀가 옛 로마도로—숲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가로지르는 풀길—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는데, 태양의 열기가 이미 열대성이었음에도 그녀가 모자를 벗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

마침 조지프 W라는 노동자가 로마도로 근처 숲에서 일하고 있었고, 정오가 되자 일곱 살쯤 된 그의 어린 아들 트레버가 빵과 치즈로 된 점심을 가져다주었다. 식사를 마친 뒤, 소년은 일하는 아버지를 두고—본인 말로는—숲에서 꽃을 찾으러 갔다. 아버지는 아들이 발견의 기쁨에 환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불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아들이 간 방향에서 가장 끔찍한 비명, 분명 극도의 공포에서 비롯된 비명이 들려오는 것에 소스라쳐 놀랐다. 그는 황급히 연장을 내려놓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러 달려갔다.

소리를 쫓아 길을 따라가다 그는 머리부터 뛰어오는 아들을 만났는데, 아이는 분명 몹시 겁에 질려 있었다. 캐물어보니 소년은, 꽃다발을

겪은 뒤 피곤함을 느껴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특이한 소리, 본인이 말하기로는 일종의 노랫소리에 잠에서 깬다고 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엿보니 헬렌 V가 풀밭에서 '이상한 벌거벗은 남자'와 놀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하지 못하는 듯했다. 소년은 끔찍하게 무서웠고, 울면서 아버지를 부르며 도망쳤다고 했다.

조지프 W는 아들이 가리킨 방향으로 나아가, 헬렌 V가 숲속이꾼들이 남긴 숲속의 풀밭이자 빈터 한가운데 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분노하며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놀라게 했다고 책망했으나, 그녀는 그 비난을 완전히 부인했고, 아이가 말한 '이상한 남자' 이야기를 비웃어 넘겼다. 그 자신도 그 이야기를 그다지 믿지 않았다.

조지프 W는, 아이가 때때로 그러듯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잠을 깬 것이리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트레버는 자신의 이야기를 굽히지 않았고, 명백한 고통 속에 있었기에,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가 달래주기를 바라며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수 주 동안 그 소년은 부모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다. 그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졌으며, 혼자서는 오두막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밤마다 '숲의 남자!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치며 깨어나 가족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상은 어느새 사그라든 듯했다. 약 세 달 뒤, 트레버는 아버지를 따라 이웃에 사는 한 신사의 집으로 갔다. 조지프 W가 가끔 일을 봐주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서재로 안내되었고, 어린 소년은 현관에 혼자 앉아 기다리게 되었다. 몇 분 뒤, 신사가 W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던 찰나, 두 사람은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뛰쳐나가 보니 아이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그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곧바로 의사가 불러왔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아이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한 일종의 발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이는 침실 중 하나로 옮겨졌고, 얼마 후 의식을 되찾았으나 곧바로 의사가 '격렬한 히스테리'라고 표현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의사는 강한 진정제를 처방했고, 두 시간쯤 지나 집으로 걸어 돌아갈 만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관을 지나던 순간, 공포의 발작이 더욱 격렬하게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는 아이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아챘고, '숲의 남자'라는 전과 같은 외침을 들었다.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어느 한 문 위쪽 벽에 박혀 있는, 기괴한 모습의 돌머리가 있었다.

집주인은 최근 자신의 집을 개축하고 있었는데, 부속 건물의 기초를 파던 중 일꾼들이 분명 로마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두상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을 앞서 말한 방식으로 박아 둔 것이었다. 그 두상은 이 지역의 가장 경험 많은 고고학자들로부터 판이나 사티로스의 것이라고 판정받았다.[*]

필립스 박사는 문제의 그 두상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내게 말한다. 그리고 강렬한 악의 그토록 생생한 표상을 받아본 적이 결코 없다고 단언한다.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든, 이 두 번째 충격은 소년 트레버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현재까지도 그는 정신적 약화를 앓고 있으며, 이 상태가 나아질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이 일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R 씨도 소녀 헬렌을 면밀히 추궁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헬렌은 트레버를 놀라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괴롭힌 적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이 소녀의 이름과 연결된 두 번째 사건은 약 6년 전에 일어났다. 그 성격은 이전보다 훨씬 기이했다.

1882년 여름 초, 헬렌은 근처에 사는 부유한 농부의 딸인 레이철 M과 유난히 친밀한 우정을 맺었다. 레이철은 헬렌보다 한 살 아래였으며, 헬렌의 이목구비도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이철이 두 사람 중 더 예쁘다고 여겼다.

두 소녀는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함께였으며,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쪽은 맑은 올리브빛 피부와 거의 이탈리아풍이라 할 만한 외모를 지녔고, 다른 한쪽은 우리 시골 지역에서 흔히 회자되는 붉고 흰 안색을 지니고 있었다.

덧붙이자면, 헬렌의 부양비로 R 씨에게 지급된 돈이 지나치게 후하다는 사실은 마을에 잘 알려져 있었고, 그녀가 언젠가 친척으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으리라는 인상이 일반에 퍼져 있었다. 따라서 레이철의 부모는 딸이 그 소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친밀함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지금은 그렇게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만 말이다.

헬렌은 여전히 숲에 대한 유별난 애정을 간직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레이철이 그녀와 동행했다. 두 친구는 이른 아침에 출발해 황혼이 질 때까지 숲에 머물렀다. 이런 산책 후 한두 번, M 부인은 딸의 태도가 다소 이상하다고 느꼈다. 레이철은 나른하고 몽롱해 보였고, 표현하자면 '평소의 그녀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점은 입에 올릴 만한 일이 아닐 만큼 사소한 것으로 여겨진 듯하다.

그러나 어느 저녁, 레이철이 집에 돌아온 뒤, M 부인은 딸의 방에서 억눌린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들어가 보니 레이철은 반쯤 옷을 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누가 봐도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레이철은 외쳤다.

'아, 어머니, 어머니, 왜 저를 헬렌과 함께 숲에 가게 하셨어요?'

M 부인은 이렇게 기이한 질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곧바로 캐묻기 시작했다. 레이철은 기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클라크는 책을 랑 닫으며 의자를 난롯불 쪽으로 돌렸다. 어느 저녁 그의 친구가 바로 그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클

라크는 지금 읽은 대목보다 조금 뒤의 지점에서 친구의 말을 끊었었다. 공포의 발작에 사로잡혀 친구의 말허리를 잘라버린 것이었다.

"맙소사!" 그는 외쳤다. "생각해 봐,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 이건 너무 믿기 어렵고, 너무 기괴해. 이런 일들이 이 고요한 세상에 있을 리 없어. 사람들이 살고, 죽고, 분투하고, 정복하거나 혹은 실패하기도 하며, 슬픔 아래 쓰러져 오랜 세월 슬퍼하고 기이한 운명을 겪는 그런 세상에서 말이야. 하지만 이런 건 아니야, 필립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분명 어떤 해명이 있어야 해, 이 공포에서 벗어날 어떤 길이 있어야 해. 이봐,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지구는 악몽이 되어버릴 거야."

하지만 필립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다.

그녀의 도주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녀는 한창 해가 밝은 낮에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초원에서 걷는 것을 보았고, 몇 초 후 그녀는 자취를 감추었다.

클라크는 난롯가에 앉은 채 그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또다시 전율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끔찍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마치 왕좌에 오른 듯, 그리고 인간의 육체 안에서 승리한 듯 군림하는 광경 앞에서 그는 압도당했다.

그의 눈앞에는 친구가 묘사했던 대로 숲 속 푸른 독길의 길고 어슴푸레한 풍경이 펼쳐졌다. 흔들리는 나뭇잎과 잔디 위에 떨어지는 그림자

가 보였고, 햇살과 꽃들이 보였으며, 멀리, 아주 먼 곳에서 두 형체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 명은 레이첼이었지만, 다른 한 명은 누구였을까?

클라크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믿으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책에 기록한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다.

마귀가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되셨다.

III 부활의 도시

"허버트! 맏소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네, 제 이름은 허버트입니다. 얼굴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제 기억력이 좀 이상하거든요.”

“와드햄의 빌리어스를 기억하지 못해?”

“그렇군, 그렇구려. 빌리어스, 죄송합니다. 내가 옛 동창에게 사정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친구, 그토록 급할 필요는 없소. 내 방이 근처에 있지만, 당장 그곳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요. 샤프츠베리 애비뉴를 조금만 걸어보는 건 어때?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네가 이런 신세가 된 거야, 허버트?”

“긴 이야기야, 빌리어스. 기이한 이야기라고나 할까. 하지만 듣고 싶다면 들어도 돼.”

“자, 가자. 내 팔을 잡아. 너 꽤 약해 보이던데.”

더럽고 흉측한 누더기를 걸친 자와 도회의 멋쟁이다운 단정하고 윤기 나는 정장을 차려입은 자—이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루퍼트 거리를 천천히 올라갔다.

빌리어스는 여러 코스로 구성된 훌륭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음에 드는 작은 키안티 와인병의 도움까지 받은 뒤 식당에서 나온 참이었다. 그는 거의 만성적이라 할 만한 특유의 심경에 젖은 채 잠시 문 옆에서 머뭇거리며, 어둡한 거리를 두리번거렸다—런던의 거리 곳곳, 매시간 마다 넘쳐나는 그 신비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빌리어스는 런던 생활의 그런 어두컴컴한 미로와 뒷골목을 누비는 노련한 탐험가임을 자부했고, 이 무익한 탐구에 더 진지한 업무에 종사할 만큼의 성실함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그는 가로등 기둥 곁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거리낌 없는 호기심으로 훑어보았다. 체계적인 식객만이 지닐 수 있는 그 진지함을 띤 채, 그는 머릿속에서 막 이런 공식을 정식화한 참이었다.

"런던은 만남의 도시라 불려왔다. 그것뿐만이 아니다—부활의 도시이기도 한 것이다."

그때, 이 사색은 팔꿈치 곁에서 들려온 처량한 청얼거림과 가련한 구걸의 목소리에 갑자기 끊겼다.

빌리어스는 다소 짜증을 내며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다소 거창했던 공상이 실제로 구현된 증거가 바로 눈앞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의 곁에, 빈곤과 영락으로 얼굴이 변형되고 일그러진 채, 기름때 묻고 맞지 않는 누더기로 겨우 몸을 가린 그의 옛 친구 찰스 허버트가 서 있었다. 빌리어스와 같은 날 입학했고, 열두 학기를 함께 즐겁고 슬기롭게 보냈던 친구였다. 서로 다른 직업과 다양한 관심사가 두 사람의 우정을 갈라놓았고, 빌리어스가 허버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6년 전이었다. 이제 그는 이 폐인이 된 남자를 슬픔과 당혹감으로 바라보았으며, 그 안에는 어떤 음울한 사연의 사슬이 그를 이런 비참한 지경으로 끌어내렸는지에 대한 일말의 호기심도 섞여 있었다. 빌리어스는 연민과 함께 미스터리애 빠진 아마추어 특유의 모든 흥취를 느꼈고, 식당 밖에서 한가로이 사색에 잠겼던 자신을 속으로 치하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묵묵히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낮은 광경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의 팔에, 분명히 거지인 사람이 매달려 걷는 모습은 평소 볼 수 없던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빌리어스는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소호(Soho)의 한 외딴 골목으로 길을 나섰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을 되뇌 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허버트? 넌 도식서에서 훌륭한 자리를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너를 상속에서 배제했어? 절대 그렇지 않겠지?”

“아니오, 빌리어스. 나는 가엾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소. 아버지는 내가 옥스퍼드를 떠난 지 일 년 후에 세상을 떠났지. 아버지는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셨고, 나는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소. 하지만 젊은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몇 달 뒤 나는 런던으로 올라가 사교계에 폭 빠져들었소. 물론 나는 훌륭한 소개장을 가지고 있었으니,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충분히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소. 나는 조금씩 도박도 했지만, 결코 고액의 베팅은 하지 않았소. 경마에서 내가 건 몇몇 베팅은 나에게 돈을 안겨주었지. 물론 몇 파운드뿐이었지만, 시가나 그런 사소한 쾌락을 감당하기엔 충분했소. 운명의 물살이 바뀌었던 것은 내 두 번째 시즌 때였소. 물론 내 결혼에 대해서는 들으셨겠지?”

“아니, 그런 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네.”

“네, 나는 결혼했어, 빌리어스. 내가 아는 지인네 집에서, 가장 놀랍고 기이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 소녀를 만났지. 그녀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어. 나도 몰랐지만, 추측컨대 우리가 처음 인연이 맺어졌을 때 그녀는 열아홉 살쯤 되었을 거야. 친구들은 피렌체에서 그녀를 알게 되었고, 그녀는 그녀가 고아이며 영국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어. 그녀는 친구들을 매료시켰고, 결국 나를 사로잡았지.

처음 그녀를 본 것은 한 저녁 파티였어. 나는 문 옆에 서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화의 떠들썩한 소음과 수군거림 사이에서, 내 심장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 그녀는 이탈리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그날 밤 그녀와 인사를 나누었고, 삼 개월 후 나는 헬렌과 결혼했어. 빌리어스, 그 여자를 ‘여자’라고 부를 수나 있다면, 그녀는 내 영혼을 타락시켰다.

결혼식 날 밤, 나는 호텔의 침실에서 그녀와 함께 앉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어.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지. 그녀는 지금도 가장 어두운 밤,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서 있어도 속삭이기 꺼릴 만한 일들을 이야기했어.

빌리어스, 너는 인생을, 런던을, 그리고 이 끔찍한 도시에서 낮과 밤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너는 가장 추악한 자들의 수다를 들어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말하건대, 너는 내가 아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단다. 너의 가장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꿈속에서도, 내가 들었던 것의 가장 희미한 그림자조차 떠올릴 수 없었으리라.

그것은 들은 것만이 아니야. 본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보았어. 너무도 끔찍한 것들이어서, 때로는 내가 거리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인간이 그런 것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빌리어스, 일 년 만에 나는 몸과 영혼이 모두 망가진 사람이 되었다. 몸과 영혼이.”

“하지만 허버트, 당신의 재산은요? 도싯주에 땅도 가지고 있었죠.”

“모두 팔았습니다. 들판과 숲, 그리고 사랑스럽던 오래된 집까지— 모든 것들요.”

“그리고 돈은?”

“그녀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는 너를 두고 떠났다는 거야?”

“네, 그녀는 어느 날 밤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를 다시 본다면, 저는 죽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단지 추잡한 비참함일 뿐이죠.

빌리어스, 당신은 제가 과장해서 감칠맛 나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의 절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설득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다시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도 저처럼, 남은 생을 쫓기는 자, 지옥을 본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빌리어스는 불쌍한 그 남자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식사를 대접했다. 허버트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앞에 놓인 와인 잔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벽난로 곁에서 우울하고 침묵한 채 앉아 있었다. 빌리어스가 작은 용돈을 건네며 그를 보내주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런데 허버트,” 문에서 헤어지며 빌리어스가 물었다. “당신 아내 이름이 뭐였지? 헬렌이라고 했지? 헬렌 뭐라고?”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사용하던 이름은 헬렌 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그녀에게 이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니, 그런 의미에서 말이야. 오직 인간만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빌리어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잘 가. 그래,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면 내가 반드시 연락할게. 안녕.”

그 남자는 혹독한 밤바람 속으로 나갔고, 빌리어스는 다시 벽난로 곁으로 돌아왔다.

허버트의 어떤 것이 빌리어스를 경악하게 했다. 그의 초라한 옷가지도, 가난이 그의 얼굴에 새겨놓은 자국도 아니었다. 오히려 안개처럼 그를 감싸고 있던, 정의할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놀라게 했다.

그 남자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그 여인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타락시켰다고 고백했다. 빌리어스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때 자신의 친구였던 이 남자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장면들의 주연자였음을.

그의 이야기는 다른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남자 자신이 바로 그 이야기의 생생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빌리어스는 들었던 이야기를 신기하게 음미했다. 자신이 그 이야기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모두 들었는지 궁금해졌다.

‘아니,’ 그가 생각했다. ‘마지막 부분은 분명 아니다. 아마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사례는 마치 중국의 상자처럼 겹쳐져 있다. 하나씩

열 때마다 더 기이한 공예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난한 허버트는 걸상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 뒤에는 더 기이한 상자들이 이어질 테니까.’

빌리어스는 허버트와 그의 이야기에서 마음을 떼어놓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기이해져 갔다. 불은 사그라들고 있었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빌리어스는 어깨 너머로 흘끗 뒤를 돌아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몸을 살짝 떨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뒤, 그는 클럽에서 지인인 오스틴이라는 신사를 만났다. 오스틴은 런던 생활의 어둡고 음침한 면뿐만 아니라 빛나는 면까지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빌리어스는 소호에서 겪은 사건과 그 여파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스틴이라면 허버트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빛을 비춰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잠시 잡담을 나누다가는 문득 질문을 던졌다.

“혹시 찰스 허버트라는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있소?”

오스틴이 획 돌아서더니 약간 놀란 표정으로 빌리어스를 뵈며 응시했다.

"찰스 허버트? 자네 3년 전엔 런던에 없었지, 아마? 응, 없었군. 그럼 폴 스트리트 사건에 대해선 듣지 못했겠군? 그 일은 당시 꽤나 큰 화제가 됐어."

"무슨 일이었습니까?"

"글쎄, 어느 신사 양반이, 신분이 매우 높은 분이었는데, 토트넘 코트 로드에서 갈라져 나간 폴 스트리트의 한 집 지하 출입 공간(area)에서 죽은 채로, 그것도 완전히 숨이 끊어진 채로 발견됐어. 물론 경찰이 그 사실을 발견한 건 아니야. 자네가 밤새 깨어 있고 창문에 불이 켜져 있으면 순경이 벨을 울려대지만, 정작 누군가의 집 지하 공간에 죽어 있으면 그냥 방치되는 법이거든. 이번 사건도 다른 여러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보를 울린 건 어떤 부랑자였지. 흔한 떠돌이나 선술집 어귀에서 빈둥대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일 때문이든 유흥 때문이든, 혹은 그 둘 다 때문에 새벽 다섯 시의 런던 거리를 어슬렁대게 된 한 신사였어. 본인 말로는 ‘집에 가는 길’이었다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치 않았고, 어쨌든 새벽 네 시에서 다섯 시 사이에 폴 스트리트를 지나야 했다는 거야. 20번지에서 무언가가 그의 눈에 띄었지. 우스꽝스럽게도 그는, 그 집이 자기가 본 어떤 집보다도 가장 불쾌한 인상(physiognomy)을 풍기고 있었다고 했어. 어쨌든 그는 지하 공간을 훑듯 내려다보았고, 돌바닥 위에 한 남자가 사지를 웅송그린 채 얼굴을 위로 향하고 누워 있는 걸 보고 적잖이 놀랐어. 우리 신사는 그 얼굴이 유난히 섬뜩해 보였다고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순경을 찾아 달려갔지. 순경은 처음엔 흔한 술 취한 자로 의심해 사건을 가볍게 여기려 했지만, 와서 남자 얼굴을 보고는 금세 태도를 바꿨어. 이 멋진 벌레를 일

찍 잡은 새(early bird)는 의사를 부르러 보내졌고, 순경은 문에 가서 벨을 울리고 두드렸지. 반쯤 잠든 단정치 못한 하녀가 내려왔어. 순경이 하녀에게 지하 공간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자, 그녀는 거리 전체를 깨울 만큼 크게 비명을 질렀지.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집에서 그를 본 적도 없다는 등의 말을 했어. 그러는 동안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함께 돌아왔고, 다음 차례는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는 거였지. 문이 열려 있었기에 네 사람이 모두 계단을 쿵쿵 내려갔어. 의사는 잠시 살펴볼 필요조차 거의 없었지. 그 가엾은 사람이 죽은 지 이미 몇 시간은 됐다고 했고, 그때부터 사건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 죽은 남자는 도둑맞은 흔적이 없었고, 그의 주머니 한쪽에서 그가 좋은 가문 출신의 재력가예, 사교계에서 인기 있고, 알려진 바로는 누구의 적도 아닌 인물임을 알 수 있는 신원 서류가 나왔지. 빌리어스, 나는 그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 이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데다, 살아 있는 친척도 없는 마당에 죽은 사람의 일을 들춰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다음으로 호기심을 끄는 점은, 의사들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거야. 어깨에 약간의 타박상이 있긴 했지만 너무 가벼워서, 마치 부엌문 밖으로 거칠게 떠밀린 것처럼 보일 뿐, 길에서 난간 너머로 던져졌거나 계단 아래로 끌려 내려진 것 같진 않았어. 그러면서도 몸에 다른 폭력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그의 죽음을 설명할 만한 흔적은 분명 없었지. 부검을 해도 어떤 종류의 독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물론 경찰은 20번지 사람들에게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했어. 여기서도, 사적인 경로로 들은 바에 따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한두 가지 더 드러났지. 집의 거주자는 찰스 허버트 부부였는데, 그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라고 했어.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에겐 폴 스트리트

가 시골 신사를 찾을 만한 장소는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 허버트 부인으로 말하자면,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어. 우리끼리 얘긴데, 그녀의 내력을 캐러 잠수해 들어간 자들이 꽤 이상한 물속에 발을 들였다는 느낌이야. 물론 두 사람 모두 죽은 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들에게 불리한 어떤 증거도 없는 탓에 풀려났지. 하지만 그들에 관해 매우 이상한 사실들이 드러났어. 시신이 옮겨진 게 새벽 다섯 시에서 여섯 시 사이였는데도 많은 군중이 모였고, 여러 이웃이 무슨 일인지 보러 달려왔지.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내뱉었는데, 그 말들로 미루어 20번지는 폴 스트리트에서 평판이 매우 나빴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형사들은 이런 소문을 사실의 견고한 근거로까지 추적해보려 했지만 잡히는 게 없었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눈썹을 치켜올리며 허버트 부부가 좀 ‘이상하다’고 여겼고, ‘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당국은 그 남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 집에서 죽었고 부엌문 밖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사실상 확신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없었고, 폭력이나 독의 어떤 징후도 없다는 점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지. 이상한 사건이지, 안 그래?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직 말하지 않은 게 더 있어. 마침 사망 원인에 관해 자문을 받았던 의사 중 한 명을 알고 있었거든. 검시 심문(inquest)이 끝나고 한참 뒤에 그를 만나 물어봤지. ‘정말로 그 사건에 당신이 곤혹스러워했다는 거요? 그 남자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진짜 모른다는 거요?’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군. ‘미안하지만, 사인은 완벽히 알고 있소. 블랭크는 공포로 죽었소. 순수하고 끔찍한 공포로 말이오. 평생 진료를 해오면서 그렇게 흥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본 적이 없소.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의 얼

굴을 수없이 봐 왔다고.’ 의사는 평소엔 꽤 침착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태도에서 묻어난 격렬함이 내겐 인상적이었어.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그에게서 끌어낼 수 없었지. 내 짐작엔 검찰(Treasury) 측에서 허버트 부부를 사람을 공포로 죽게 한 죄로 기소할 길을 찾지 못했나 봐. 어쨌든 아무 일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은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졌지. 자네는 허버트에 대해 뭐 좀 아는 게 있나?”

“그렇군.” 빌리어스가 대답했다. “그는 내 옛 대학 친구였지.”

"정말? 부인은 본 적 있나?"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허버트는 수년 전부터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학 정문이나 패딩턴 역에서 사람을 작별할 때, 몇 년 동안이나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도 뜻밖의 곳에서 그 사람이 고개를 내미는 건 참 묘한 일이지. 하지만 나는 허버트의 부인을 꼭 보고 싶었어. 그녀에 대해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거든.”

“어떤 종류의 일들이요?”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경찰 법원에서 그녀를 본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장 혐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묘사하려다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했죠. 그녀는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 한 명의 죽은 남자가 증언할 수 있었다면, 그는 아

주 기이한 진실을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블랭크 씨 같은(부디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면요) 정중한 시골 신사가, 왜 저런 기이한 20번지 집에 있었을까요? 정말 이상한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군요, 오스틴. 정말 특이한 사례입니다. 옛 친구에 대해 물었을 때, 이렇게 뜻밖의 금속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요. 음, 이제 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빌리어스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자신이 떠올렸던 ‘중국식 상자’ 비유를 곱씹었다. 여기에야말로 정말 기이한 공예품이 있었던 것이다.

IV. 폴 스트리트에서의 발견

빌리어스가 허버트를 만난 지 몇 달이 지난 뒤였다. 클라크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난로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랍장 쪽으로 생각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 넘게 '회고록'에서 거리를 두어 왔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잡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건이 그 안에 불러일으킨 경이로움과 기이한 호기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사건, 정확히는 그 개요를 가설처럼 한 과학자 친구에게 들려준 적이 있었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클라크가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날 밤, 클라크는 그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 애쓰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사색에서 깨어났다.

빌리어스 씨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빌리어스. 나를 찾아주다니 정말 고마우네. 너를 본 지가 몇 달이 지났어. 거의 일 년은 됐을 거야. 들어와, 들어와. 그런데 어때, 빌리어스? 투자에 대해 조언이 필요해?”

“아니, 괜찮소. 그런 일은 이미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오. 클라크, 나는 사실 당신과 상의하러 온 것이오. 최근 제보된 꽤 기이한 사안이 있거든.”

“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터무니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나 자신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하곤 하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을 찾았소. 당신은 현실적인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

빌리어스 씨는 ‘악마의 존재를 증명하는 회고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 빌리어스. 나는 할 수 있는 한 내 조언을 기꺼이 드리겠소.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떤 것이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제 성품을 아시죠. 저는 거리에서 늘 눈을 크게 뜨고 다닙니다. 지난 시절에는 이상한 사람들과 묘한 사건들을 여러 차례 마주치기도 했지만, 이번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습니다.

약 세 달 전,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 식당에서 막 나서던 참이었죠. 훌륭한 저녁 식사와 키안티 한 병을 즐긴 뒤, 잠시 인도에 서서 런던 거리와 그곳을 오가는 무리들에 갇힌 신비로움에 대해 생각하

고 있었습니다. 붉은 와인은 이런 공상을 부추기죠, 클라크. 아마 잔글씨로 한 페이지 분량은 머릿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가온 한 거지가 평소처럼 구걸을 해 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돌아보았는데, 그 거지는 옛 친구 허버트의 처참한 잔해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소호의 길고 어두운 거리 중 한 곳을 오르내리며 걸었고, 거기서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몇 살 어린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가 자신의 몸과 영혼을 모두 타락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말할 수 없다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저를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돈을 쥐여 주고 그를 보냈는데, 단언컨대 그가 사라진 뒤 저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빌리어스, 이 모든 게 조금은 과장된 상상일 뿐은 아닌가요? 가엾은 그 남자는 무모한 결혼을 했을 테고, 평범한 말로 하면 결국 파탄이 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 빌리어스는 클라크에게 오스틴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시다시피," 그가 결론을 내리며 말했다. "이 블랭크 씨가 누구든 간에, 그가 순전한 공포로 죽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이 그의 목숨을 끊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분명 그 집 안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집은 인근에서 좋지 않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발동해 직접 그 장소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 거리는 어쩐지 서글픈 곳이었습니다. 집들은 초라하고 음울할 만큼은 오래되었지만, 정겹고 운치 있다 할 만큼 오래된 것은 아니었죠.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가구가 딸린 채로, 혹은 딸리지 않은 채로 하숙용 임대로 나와 있었고, 거의 모든 문에는 초인종이 세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1층은 가장 평범한 형태의 가게로 개조되어 있었고요. 모든 면에서 음울한 거리였습니다. 20번지가 임대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을 찾아가 열쇠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동네에서는 허버트 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중개인에게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 집을 떠났는지, 그 사이에 다른 세입자가 있었는지를요. 그는 잠시 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허버트 가족이 그가 '불미스러운 일'이라 부르는 사건 직후 곧장 떠났고, 그 이후로는 집이 계속 비어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빌리어스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늘 빈집을 둘러보는 것을 꽤 좋아했습니다. 벽에 박힌 못들과 창틀에 두껍게 쌓인 먼지, 그 황량하고 텅 빈 방들에는 묘한 매력이 있죠. 하지만 폴 스트리트 20번지를 둘러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 집 공기에 묘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빈집은 으레 답답한 법이지만, 이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앞방과 뒷방, 그리고 아래층 부엌들을 둘러보았는데, 예상대로 모두 더럽고 먼지가 많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모든 방이 이상했습니다. 정확히 짚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묘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가장 끔찍했던 것은 2층의 한 방이었습니다. 제법 큰 방이었고, 한때는 벽지가 꽤 화사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페인트며 벽지며 모든 것이 가장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방 전체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쥐었을 때 이가 갈리는 게 느껴졌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안쪽 벽에 기대 서서, 도대체 이 방의 무엇이 제 사지를 떨게 하고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심장을 뛰게 하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신문 더미가 바닥에 흩어져 있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사 년 전 것들이었고, 일부는 반쯤 찢겨 있었고 일부는 포장지로 쓰였던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더미 전체를 뒤집어 보다가 저는 기묘한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보여 드리지요.

하지만 저는 그 방에 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 기운이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사히 바깥 공기 속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고, 한 사

내는 제가 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도를 이쪽저쪽 비틀거리며 걸었고, 열쇠를 중개인에게 돌려주고 집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간신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신경성 충격과 탈진이라고 진단했죠. 그 며칠 사이의 어느 날, 석간 신문을 읽다가 '아사(餓死)'라는 제목의 단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흔한 종류의 기사였죠. 메릴번의 한 모범 하숙집, 며칠간 잠겨 있던 문,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의자에 앉은 채 죽어 있는 남자. 기사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찰스 허버트로 알려져 있으며, 한때는 유복한 시골 신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름은 삼 년 전, 토트넘 코트 로드의 폴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사망자는 그 거리 20번지 집의 세입자였고, 그 집의 지하 앞마당에서 신분 있는 한 신사가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곳이다.' 비극적인 결말 아닙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가 제게 한 말이 사실이라면—저는 사실이라 확신합니다만—그 남자의 삶은 통째로 비극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대에 오르는 어떤 비극보다도 더 기묘한 종류의 비극이었죠."

“그게 바로 이야기란 말인가?” 클라크가 생각에 잠긴 듯 물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음, 정말이지 빌리어스, 이 일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 분명 이 사건에는 특이한 정황들이 있어. 가령 허버트의 집 지하 앞마당에서 그 사내의 시신이 발견된 일이라든가, 사인을 두고 의사가 내놓

은 기이한 견해 같은 것들 말일세. 하지만 결국 그 사실들은 평범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르네. 자네가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느꼈다는 감각에 관해서는, 나는 그것이 생생한 상상력 때문이었다고 보고 싶어. 자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곱씹고 있을 거야. 이 일을 두고 더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군. 자네는 분명 어떤 미스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허버트는 이미 죽었네. 그렇다면 자네는 어디를 더 찾아보겠다는 건가?"

“나는 그 여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결혼한 그 여자, 바로 그녀가 수수께끼입니다.”

두 사람은 난로 곁에서 침묵을 지켰다. 클라크는 속으로 자신에게 박수를 보냈다. 평범한 사안을 옹호하는 자신의 태도를 성공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빌리어스는 어두운 망상에 잠겨 있었다.

“나 담배 한 대 피우지.” 그가 마침내 말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갑을 더듬었다.

“아!” 그는 살짝 놀라며 말했다. “내가 보여줄 게 있는 줄 깜빡했군. 폴 스트리트의 집에서 낡은 신문 더미 속에서 꽤 흥미로운 스케치를 하나 발견했다고 말한 기억나지? 여기 있어.”

빌리어스가 주머니에서 작고 얇은 소포를 꺼냈다. 갈색 종으로 감싸고 끈으로 동여맨 것이었다. 매듭이 꽤 복잡해서 풀기가 쉽지 않았다.

클라크는 억지로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빌리어스가 애써 끈을 풀고 겹감의 종이를 벗겨내는 사이, 그는 의자에 몸을 기울였다. 겹포장을 벗기자 안쪽에는 티슈지 같은 또 다른 포장지가 나왔다. 빌리어스는 그것을 치우고, 아무 말 없이 작은 종이를 클라크에게 건넸다.

방 안에는 오 분 이상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두 남자는 너무도 미동조차 없어, 복도 밖 홀에서 있는 낡고 큰 구식 시계의 똑딱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중 한 명의 마음속에서, 그 느리고 단조로운 소리는 먼, 아주 먼 과거의 기억을 일깨웠다.

그는 여자의 머리를 그린 작은 펜화 스케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세심하게, 진정한 화가의 손으로 그려진 것이었다. 여자의 영혼이 두 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입술은 기묘한 미소와 함께 살짝 벌어져 있었다.

클라크는 여전히 그 얼굴을 응시했다. 그 얼굴은 그의 기억 속에 오래전 어느 여름 저녁을 불러냈다. 그는 다시금 길고 아름다운 계곡을 보았다. 언덕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강, 초원과 옥수수밭, 둔탁하게 붉은 해, 그리고 물 위로 차갑게 피어오르는 하얀 안개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수많은 세월의 물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클라크, 메리는 판 신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의사의 곁에 있는 음산한 방에 서 있었다. 시계의 묵직한 똑딱 소리를 들으며,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등불 아래 녹색 의자에 누운 형체를 주시하며.

메리가 몸을 일으켰다. 그가 그녀의 눈 속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가슴속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마르고 쉼 듯했다.

“그 여자가 허버트가 결혼한 여자야.”

클라크는 다시 스케치를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결국 메리가 아니었다. 얼굴은 분명 메리의 것이었지만,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무언가는 흰 옷을 입은 소녀가 의사와 함께 실험실로 들어왔을 때, 혹은 끔찍하게 깨어났을 때, 혹은 옷은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의 메리 얼굴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시선, 풍만한 입술에 걸린 미소, 혹은 얼굴 전체의 표정. 그 무엇인가는 클라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오한을 몰고 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필립 박사의 말을 떠올렸다. “내가 본 적 있는 악의 가장 생생한 형상.” 그는 손에 든 종이를 기계적으로 뒤집어 뒷면을 훑듯 보았다.

“세상에! 클라크, 무슨 일이야? 너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네.”

클라크가 신음과 함께 뒤로 쓰러지듯 기대며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리는 순간, 빌리어스는 의자에서 거칠게 벌떡 일어났다.

“빌리어스, 기분이 좀 이상하군. 이런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거야. 포도주 좀 따라다오. 고마워, 이 정도면 충분해. 몇 분만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까.”

빌리어스는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를 들어 올렸다. 클라크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그것을 뒤집어 보았다.

“그걸 봤나?” 그가 물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이 허버트의 아내, 아니 이제 그의 과부인 여인의 초상화라고 단정했지. 지금 기분이 어떤가?”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냥 잠시 어지러울 뿐이었어요. 당신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 그림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단어, ‘헬렌’이 뒷면에 적혀 있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이 헬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맞다. 헬렌 본.”

클라크는 신음을 터뜨렸다.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지금, 내가 오늘 밤 들려준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서 이 여자가 맡은 역할에는 매우 기이한 점들이 있다는 데에, 너도 내 말에 동의하지 않겠는가?” 빌리어스가 말했다.

“그래, 빌리어스.” 클라크가 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야. 정말로 이상하단 말이지.”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겠군. 내가 너를 도울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지금 가야 해?”

“그래, 잘 가, 빌리어스. 잘 가.”

“일주일 안에 다시 찾아봐.”

5. 조언의 편지

“오스틴, 자네 알고 있나?” 화창한 5월의 어느 아침, 두 친구가 피카딜리를 따라 차분히 거닐던 중에 빌리어스가 말했다. “내가 확실하는 바가 있네. 자네가 폴 스트리트와 허버트 부부에 대해 들려준 그 이야기는, 어느 놀라운 사연의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솔직히 고백해야겠군. 몇 달 전 내가 자네에게 허버트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바로 직전에 그를 본 참이었어.”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어디서?”

“그는 어느 밤 거리에서 내게 구걸을 했어. 더없이 비참한 몰골이었지만, 나는 그 남자를 알아보고는 그에게 자신의 사연을, 적어도 그 대강이라도 들려달라고 청했지. 요컨대 이런 이야기였어 — 그는 아내 때문에 파멸했다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자신의 몸과 영혼을 모두 망가뜨렸다고만 말했다. 그 남자는 이제 이미 죽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소?”

“아, 그걸 나도 알고 싶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리라. 클라크라는 남자를 알고 있는데, 무척 냉정한 성격이야. 엄밀히 말하면 사업가지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이지. 내 뜻을 이해해 주겠지? 단순히 사업가적인 지혜가 아니라, 사람과 삶에 대해 진정으로 통찰하는 눈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 사안을 털어놓았어. 그는 분명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 며칠 후, 나는 이런 기이한 편지를 받았지.”

오스틴이 봉투를 받아 편지를 꺼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읽기 시작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빌리어스, 내 친구.

너가 며칠 밤에 나에게 상의했던 그 일에 대해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내 조언은 이렇다. 초상화를 불태워 버려라.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지워라. 빌리어스,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마 내가 어떤 비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다. 나는 절벽 가장자리를 내려다보다 공포에 질려 물러선 여행자와 같다. 내

가 아는 것은 충분히 기괴하고 끔찍하지만, 내 지식 너머에는 더 무서운 심연과 공포가 존재한다. 그것은 겨울밤 벽난로 곁에서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믿기 어렵고 더 끔찍하다.

나는 더 이상 탐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네 행복을 소중히 여긴다면, 너도 같은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언제든 나를 만나러 오라. 하지만 이 주제보다는 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자.

오스틴은 편지를 꼼꼼하게 접어 빌리어스에게 건넸다.

“정말 특이한 편지군요.” 그가 말했다. “그가 초상화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아! 내가 폴 스트리트에 다녀왔다고 말하지 않았군.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

빌리어스는 클라크에게 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오스틴은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 방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불쾌한 감각을 느꼈다니, 정말 기이하군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즉, 어떤 혐오감 같은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것은 정신적인 고통이라기보다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치명적인 유독 가스를 마시는 것 같았죠. 그 가스는 몸의 모든 신경과 뼈, 그리고 힘줄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죠.”

“네, 맞아요. 정말 이상하죠. 보시죠, 당신의 친구는 이 여자와 관련된 매우 어두운 비화가 있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할 때 그에게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나요?”

“네, 느꼈습니다.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듯 보였지만, 자신이 자주 겪는 일시적인 발작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소?”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내 말을 거의 무관심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초상화를 보여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말한 발작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는 끔찍하게 보였다고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여자를 이미 본 적이 있어야 해. 하지만 다른 설명도 가능해. 익숙했던 건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었을 수도 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무엇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가 손에 든 초상화를 뒤집어 본 순간,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죠. 그 초상화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내리기란 불가능하죠. 저는 멜로드라마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흔해빠진 그런 유명 이야기만큼 진부하고 지루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빌리어스, 이 모든 일의 밑바닥에는 뭔가 매우 기묘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듯합니다.”

두 사람은 의식하지 못한 채, 피카딜리를 북쪽으로 향하는 애솔리 거리로 들어섰다. 이 거리는 길고 다소 음울했다. 하지만 여기저기 어둠에 쌓인 집들 속에 꽃과 화사한 커튼, 문에 칠한 밝은 페인트가 어딘지 모르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오스틴이 말을 멈추자 빌리어스가 고개를 들어 한 채의 집을 바라보았다. 빨간색과 흰색의 제라늄이 모든 창턱에서 축 처져 늘어졌고, 노란색 커튼이 각 창문마다 안쪽으로 젖혀져 걸려 있었다.

“참 밝아 보이지? 그렇지?” 그가 말했다.

“네, 안쪽은 더 밝아요. 이 시즌에서 가장 즐거운 집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다녀온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들은 그곳이 매우 활기차고 즐거운 곳이라고 말하더군요.”

“누구 집이야?”

“비어먼트 부인택입니다.”

“그녀가 누군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남미에서 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결국 그녀가 누구인지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매우 부유한 여성임은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상류층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람들이 그녀와 교류하고 있죠.

그녀가 보유한 클라레(적포도주)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와인이라니,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아르젠틴 경이 그 일에 대해 말해 주더군요. 그는 지난 주 일요일 저녁에 그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르젠틴 경은 자신이 그런 와인을 맛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르젠틴 경은 와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떠오르니, 이 보몬트 부인은 좀 특이한 성향의 여성인 것 같습니다. 아르젠틴 경이 와인의 연도를 묻자,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천 년쯤 되었을 겁니다.’라고요.

아르젠틴 경은 그녀가 농담을 건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항아리를 보여 주겠다고 했으니깐요. 물론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료가 천 년이나 된다는 건, 좀 지나치게 고대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제 방입니다. 들어오시겠어요?”

“고마워. 갈까 봐. 그 호기심 가게에 간 지 좀 됐으니까.”

그 방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묘하게도 어색했다. 각자 병과 책장, 테이블, 그리고 모든 러그와 장식품들이 서로 분리된 존재처럼 보였다. 각각이 고유의 개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했다.

“요즘 새로 나온 건 없나?” 잠시 후 빌리어스가 물었다.

“아니요, 그럴 것 같지는 않군요. 그 기묘한 향아리들, 보셨죠? 그렇겠지요.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스틴은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찬장마다, 선반마다. 새로운 기이한 물건을 찾기 위해.

그의 시선은 끝내 한 구석에 놓인 이상한 상자에 머물렀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이였다. 상자는 기묘하게도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아, 내가 잊고 있었군. 보여줄 것이 하나 있네.”

오스틴은 상자의 잠금을 풀고 두꺼운 4절판 책 한 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은 뒤, 잠시 내려놓았던 시가를 다시 입에 물었다.

“빌리어스, 화가 아서 메이릭을 아느냐?”

“조금 알죠. 제 친구 집에서 두세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얼마 전부터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는 죽었소.”

“정말요? 참으로 젊었군요.”

“그래, 죽을 때 겨우 서른이었지.”

“그는 무슨 병으로 죽었소?”

“모르겠소. 그는 내 친한 친구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 그는 이곳에 자주 찾아와 몇 시간씩 수다를 떨곤 했소. 내가 만나 본 화자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말솜씨가 좋았어. 그림 이야기까지 할 줄 알았으니, 그건 대부분의 화자들에게는 없는 재능이었지.

대략 열여덟 달 전, 그는 너무 과로한 탓에 지친 기색이었어. 내 권유로 그는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듯한 여행을 떠났지. 뉴욕이 첫 번째 기착지일 거라고는 들었지만, 그 후로 그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소.

삼 개월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의사로 일하는 영국인 의사로부터 이 책을 받았어. 함께 온 정중한 편지에는, 그가 메리릭 씨의 병간호를 했으며, 사망한 메리릭 씨가 이 봉투를 내게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 그게 다였소.”

“그래서 더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려고 편지를 띄워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던 참입니다. 의사에게 편지를 쓰라고 권하시는 건가요?”

“물론이지. 그 책은 어때?”

그것은 내가 받을 때부터 봉인이 되어 있었다. 의사가 그것을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아주 희귀한 물건이라는 뜻인가요? 메리크는 수집가였나요?”

“아니요, 저는 수집가라고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 거의 수집가라 할 수 없죠. 자, 이 아이누 항아리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들은 좀 특이하지만, 나는 괜찮아. 하지만 메리크의 유산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네, 맞아요. 사실 이건 좀 특이한 종류라서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당신이라면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빌리어스는 책을 받아 무작위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은 인쇄된 책이 아닌 건가?” 그가 물었다.

“아니요. 그것은 내 불쌍한 친구 메이릭의 흑백 드로잉 모음입니다.”

빌리어스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빈 페이지였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그가 읽었다.

하루 종일 세상은 침묵을 지킨다. 그 침묵은 공포와 함께 숨겨져 있다. 밤의 불빛이 비친다. 에기파노스들의 합창이 사방에서 울려 퍼진

다. 바다 연안을 따라 피리의 노래 소리가 들리고, 심벌즈의 울림이 메아리친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빌리어스를 깜짝 놀라게 한 그림이 있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오스틴 쪽을 올려다보았다. 빌리어스는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죽은 화가가 강렬한 흑백으로 펼쳐 놓은 끔찍한 악의 발푸르기스의 밤—기이하고 괴물 같은 악—속에 잠긴 채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다. 파운과 사티로스, 에기파노스의 형상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덤불 속의 어둠, 산마루 위의 춤, 외로운 해안의 풍경, 푸른 포도원, 바위와 황량한 곳의 정경들이 그의 앞을 차례로 스쳐 갔다. 인간의 영혼이 그 앞에서 움츠러들며 전율할 법한 세계였다. 빌리어스는 남은 페이지들을 확확 넘겼다. 이미 충분히 본 뒤였다. 그러나 그가 거의 책을 닫으려 할 때, 마지막 장의 그림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오스틴!”

“그래, 대체 뭐야?”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흰 종이 위에, 오직 한 여인의 얼굴만이 떠 있었다.

“누구인지 알아? 아니, 물론 모르지.”

“그렇습니다.”

“누구야?”

“허버트 부인입니다.”

“확실합니까?”

“완전히 확신합니다. 가엾은 메이릭! 그는 그녀의 역사에 더해진 또 하나의 장(章)일 뿐이지요.”

“하지만 그 그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무시무시한 그림들입니다. 그 책은 다시 상자에 넣어 잠가 두세요, 오스틴. 제가 당신이라면 태워 버리겠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 있다 해도, 그건 곁에 두기에 끔찍한 물건임에 틀림없으니까요.”

“그래, 정말 특이한 그림들이지. 그런데 도대체 메이릭과 허버트 부인 사이에 무슨 접점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또 그녀와 이 그림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궁금하군.”

“아, 누가 알겠는가? 이 일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생각엔, 이 헬렌 본, 혹은 허버트 부인이야말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는 런던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스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아올 테고, 그때쯤이면 그녀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이 그리 달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VI 자살자들

아르젠틴 경은 런던 사교계에서 크게 사랑받는 인물이었다. 스무 살 무렵의 그는 명문가의 성(姓)만 달고 있을 뿐 가난한 처지여서, 어떻게든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가장 투기적인 대금업자라 할지라도, 그가 언젠가 자신의 성을 작위로 바꾸고 가난을 큰 재산으로 바꾸리라는 가망성에 걸어 오십 파운드를 빌려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좋은 자리들의 원천 가까이에 있었던 덕분에 가문이 보유한 교회 봉직(family living) 가운데 하나를 자기 몫으로 차지할 수 있었지만, 아들의 경우 설령 성직에 들어갔더라도 그 정도 자리조차 얻기 어려웠을 것이고, 더구나 그는 성직자의 길에 아무런 소명도 느끼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학사 가운과, 차남의 손자(younger son's grandson)에게나 어울릴 만한 약간의 재치 외에는 별다른 무장 없이 세상을 마주했다. 그런 변변찮은 장비로도 그는 그럭저럭 봐줄 만한 싸움을 벌여 나갔다. 스물다섯의 찰스 오버넌은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씨름하며 분투해야 하는 처지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가문의 높은 자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일곱 사람 중에 어느덧 세 사람만 남아 있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오래 살 만한 목숨(good lives)’이었지만, 그렇다고 줄루족의 창이나 장티푸스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어느 날 아침, 오버넌은 눈을 뜨고 자신이 아르젠틴 경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서른의 그는 인생의 난관에 맞서 그것을 정복한 사람이었다. 이 상황은 그에게 더없는 즐거움이었다. 그는 가난이 늘 그러했듯 부 또한 자신에게 꼭 그만큼 유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르젠틴은 잠시 생각한 끝에, 하나의 정교한 예술로 여겨지는 만

찬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흥겨운 즐길 거리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그가 베푸는 만찬은 런던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그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은 누구나 탐내는 일이 되었다. 작위를 얻고 만찬을 베푸는 일을 십 년이나 이어 온 뒤에도 아르젠틴은 좀처럼 권태에 빠지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삶을 즐겼고, 일종의 전염처럼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졌다. 한마디로 그는 최상의 동행이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으니, 그 충격은 깊고 또 광범위했다. 사람들은 신문이 눈앞에 있는데도 좀처럼 믿지 못했고, 거리에서는 “어느 귀족의 의문의 죽음”을 외치는 신문팔이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거기에 적힌 것은 짧은 기사 한 토막뿐이었다. “아르젠틴 경이 오늘 아침 자신의 시종에 의해 참담한 정황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의 자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 행위의 동기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고인은 사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다정한 태도와 호화로운 환대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작위는 ~가 계승한다.” 등등.

하지만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세 명의 신사가 또다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자,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 그중 한 명은 귀족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지위와 재력이 충분한 명사들이었다. 스완리 경은 어느 아침 자신의 옷방에서 벽에 박힌 못에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고, 콜리어-스튜어트 씨와 헤리스 씨는 아르젠틴 경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택했다. 어느 경우든 설명은 없었고, 험벗은 사실 몇 가지 뿐이었다. 저녁에는 멀쩡히 살아 있던 사람이 아침에는 검게 부어오른

얼굴의 시체가 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경찰은 화이트채플의 추악한 살인 사건을 검거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함을 시인해야 했다. 하지만 피카딜리와 메이페어의 끔찍한 자살 앞에서 경찰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이스트엔드 범죄의 설명으로 통하던 단순한 잔혹성조차, 웨스트엔드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결심한 이들은 모두 부유하고 번창하며, 겉보기에는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가득해 보였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가장 예리한 조사조차 숨겨진 동기의 그림자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 공기 중에는 공포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마주칠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상대가 다섯 번째 이름 없는 비극의 희생자가 되지는 않을지 의심했다. 기자들은 회고 기사를 꾸며낼 자료를 스크랩북에서 뒤져 보았으나 헛수고였고, 많은 가정에서는 경외감 어린 마음으로 조간 신문을 펼쳤다. 다음 일격이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끔찍한 일들이 모두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스틴이 빌리어스 씨를 찾아왔다. 그는 빌리어스가 클라크를 통해서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허버트 부인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는지 궁금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

“아니요.” 빌리어스가 말했다. “클라크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는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봐도 소용이 없었죠. 헬렌 본이 폴 거리를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해외로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 오스틴. 최근 몇 주 동안은 이 일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저 해리스를 아주 가까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끔찍한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스틴이 진지하게 답했다. “아르젠틴이 제 친구였다는 건 아시지요. 기억이 맞다면, 당신이 제 방에 오셨던 그날 우리가 그 친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슐리 가에 있는 그 집, 보몽 부인의 집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아르젠틴이 그곳에서 만찬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네. 물론 자네도 알겠지만, 아르젠틴이 그 전날 밤—그가 죽기 바로 전날 밤—저녁을 든 곳이 거기였네.”

“아니, 그런 말은 처음 듣네.”

“그래, 맞아. 보몽 부인을 배려해서 이름은 신문에 실리지 않았지. 아르젠틴은 부인이 무척 아끼던 손님이었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한동안 부인이 너무도 비통한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들리더군.”

빌리어스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는 말을 건넌지 말지 망설이는 듯했다. 오스틴이 다시 말을 시작했다.

“아르젠틴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만큼 끔찍한 공포를 느끼지 않네. 그때도 이해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나는 그를 잘 알고 있었네. 그가—혹은 다른 누구라도—그토록 끔찍한

방식으로 냉정하게 죽음을 결심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아.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평판을 얼마나 입에 올리는지 자네도 알 것이네. 이런 사건이라면 묻혀 있던 어떤 스캔들이나 감춰진 비밀이라도 분명 드러났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 광증이라는 가설은 검시 배심에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두 헛소리라는 건 누구나 안다네. 자살 광증은 천연두가 아니지 않나.”

오스틴은 다시 어두운 침묵에 잠겼다. 빌리어스도 말없이 앉아 친구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망설임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생각을 저울에 올려 재는 듯했고, 따져 보던 여러 고려 사항 끝에도 여전히 말을 잊지 못했다. 오스틴은 다이달로스의 미궁만큼이나 답이 보이지 않는 비극의 기억을 떨쳐내려 애쓰며, 그 사고 시즌에 있었던 좀 더 즐거운 사건들과 모험에 대해 무심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보몽 부인 말이요.” 그가 말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더라. 거의 런던을 휩쓸다시피 했지요. 며칠 전 플럼택에서 만났는데, 정말 놀라운 여성이요.”

“보몽 부인을 만나셨소?”

“그래요. 그 부인 주변에는 마치 작은 궁정이 선 듯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아마 미인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었소. 이목구비는 더없이 정교한데, 그 표정이 어딘가 기묘했소. 게다가 그녀를 바라보는 내내, 그리고

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표정이 어쩐지 낯익다는 기묘한 느낌이 들었소.”

“당신은 분명 그 여자를 로우(Row)에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니요, 저는 그 여자를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수수께끼 같죠. 제 기억으로는 그녀와 비슷한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희미하지만 끈질긴, 먼 과거의 기억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감정을 비유하자면, 꿈속에서 기이한 도시와 신비로운 땅, 그리고 환상적인 인물들이 갑자기 낯익고 익숙하게 느껴질 때의 그 묘한 느낌과 같습니다.”

빌리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시선을 방 안 어딘가 어정쩡하게 떨군 뒤, 아마도 대화를 이어갈 만한 무언가를 찾느라 방 안을 두리번 거렸다. 그의 눈은 낡은 트렁크 하나에 머물렀다. 그 트렁크는 화가의 기이한 유물이 숨겨져 있던, 고딕 문장이 새겨진 나무상자와 어느 정도 닮아 있었다.

“가엾은 메리크 일로 그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소?” 그가 물었다.

“네, 그 병과 죽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삼 주에서 한 달쯤 지나서나 올 거예요. 메리크가 허버트라는 영국 여자를 아는지, 만약 안다면 그녀에 대해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리크가 뉴욕이나 멕시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여행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 여자가 한 명 이상의 이름을 가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여자의 초상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할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것을 매튜스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게나 말이오. 그 생각을 나도 못 했군요. 지금이라도 보냅시다. 잠깐! 저 아이들이 뭐라고 외치는 게요?”

두 남자가 수군거리는 사이, 어지러운 함성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동쪽에서 올라와 피카딜리를 따라 불어닥쳤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야말로 소리의 폭포수였다. 평소 고요하던 거리로 소리는 밀려들었고, 모든 창문을 얼굴이 담긴 액자처럼 만들었다. 호기심 어린 얼굴들, 흥분한 얼굴들이었다. 비명과 목소리는 빌리어스가 사는 적막한 거리로 메아리쳤다. 소리는 다가올수록 또렷해졌다. 빌리어스가 말을 맺자마자, 보도 위에서 대답이 울려 퍼졌다.

‘웨스트엔드의 괴이한 사건들; 또 다른 끔찍한 자살; 상세한 내용!’

오스틴은 계단을 뛰어 내려가 신문을 사고는, 거리에서 일어난 소란이 요동치듯 커졌다가 잦아드는 사이 빌리어스에게 그 단락을 읽어주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공기는 소리와 공포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또 한 명의 신사가 끔찍한 자살 유행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웨스트엔드 일대에 만연했던 이 공포스러운 현상 말입니다. 플

럼 스톡 하우스, 그리고 데번 킹스 포메로이의 시드니 크래쇼 씨가, 오랜 수색 끝에 오늘 오후 1시 자기 정원의 나뭇가지에 목매단 채 숨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은 어젯밤 칼튼 클럽에서 저녁을 들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는 약 10시경 클럽을 떠났으며, 잠시 뒤 세인트 제임스 스트리트를 여유롭게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즉시 의료진이 호출되었으나,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크래쇼 씨에게는 어떤 종류의 고민이나 불안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의 비통한 자살은 지난 한 달간 같은 종류로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스코틀랜드 야드 당국은 이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 어떤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은 무언의 공포에 질린 채 종이를 내려놓았다.

“내일 런던을 떠납니다.” 그가 말했다. “이곳은 악몽의 도시입니다. 빌리어스,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빌리어스 씨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신문의 보도를 주의 깊게 경청했고, 이제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의 그림자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오스틴.” 그가 대답했다. “어젯밤 일어난 사소한 사건 하나를 언급하기로 마음을 정했소. 기억이 맞다면, 크래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열 시가 조금 지난 뒤 세인트 제임스 거리였지?”

“네, 그렇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진술은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크래슈는 그 이후에도 목격되었으니까요. 오히려 훨씬 나중이었죠.”

“어떻게 아시오?”

“오늘 새벽 두 시쯤 내가 직접 크래쇼를 봤기 때문이요.”

“크래쇼를 봤다고? 빌리어스, 당신이?”

“네, 아주 또렷하게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이에는 발 몇 뼘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하느님 이름으로, 그를 보셨습니까?”

“그 근처였다. 아슬리 거리에서 그를 봤다. 그는 막 한 집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참이었다.”

“그 집이 어디인지 알았느냐?”

“네. 비아몬트 부인의 집이었죠.”

“빌리어스!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생각해보시오. 분명히 오해가 있는 거요. 크래시가 새벽 두 시에 비엠티 부인의 집에 있을 리가 없잖소. 당신은 분명히 꿈꾸고 있었을 거요, 빌리어스. 당신은 늘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니요, 저는 충분히 깨어 있었어요. 설령 제가 말씀하신 대로 꿈을 꾸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본 것은 저를 충분히 깨어 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당신이 본 게 뭐야? 정확히 무엇을 봤다는 거지? 크래슈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좋아하시다면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본 것이라 믿는 것ेल요. 그건 당신께서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좋아, 빌리어스.”

거리의 소음과 떠들썩함은 이미 잦아들었다. 비록 가끔씩 먼 곳에서 외침 소리가 들려오기는 했지만, 그 무겁고 납작한 침묵은 마치 지진이 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빌리어스는 창문에서 돌아서 말을 시작했다.

"나는 어젯밤 리젠트 파크 근처의 어느 집에 있었는데, 그곳을 나설 때 핸섬마차를 잡는 대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 밤은 충분히 맑고 쾌적했고, 몇 분쯤 걷자 거리는 거의 나 혼자만의 것이 되어 있었어. 오스틴, 밤의 런던에 혼자 있다는 건 묘한 경험이야. 가스등이 원근법대로 길게 늘어서 있고, 죽은 듯한 침묵이 깔려 있다가, 이따금 돌바닥 위를 달리는 핸섬마차의 질주와 덜그럭거리는 소리, 말발굽 아래에서 튀어 오르는 불꽃이 솟구치곤 하지. 나는 밤거리에 너무 오래 나와 있는 탓에 조금 지쳐서 꽤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시계가 두 시를 칠 무렵 너도 알다시피 내 귀갓길에 있는 애슐리 스트리

트로 꺾어 들어섰어. 그곳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가로등도 더 드물었지. 전체적으로 겨울 숲처럼 어둡고 음울해 보였어. 거리 절반쯤 왔을 때, 아주 살그머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자연스럽게 이런 시각에 나처럼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어. 마침 문제의 그 집 가까이에 가로등이 하나 있었고, 나는 한 남자가 계단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 그는 막 문을 닫은 참이었고 얼굴이 나를 향해 있었어. 나는 곧바로 크래쇼임을 알아봤지. 말을 나눠 본 적은 없지만 자주 보아 온 사람이었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고 확신해. 잠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본 뒤—솔직히 고백하자면—나는 한껏 달리기 시작했고, 내 집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그 속도를 유지했어."

“왜?”

“왜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내 피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서 그런 지옥 같은 정념의 혼란이 이렇게까지 빛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 눈이 잃어버린 영혼의 눈임을 알았습니다. 오스틴, 그 남자의 겉모습은 유지되었지만, 그 안에는 지옥 전체가 차 있었습니다. 격분한 욕망, 불꽃처럼 타오르는 증오, 그리고 모든 희망을 잃은 공포가 밤하늘을 향해 소리치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빨을 악물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완전한 흑암.

그가 나를 보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본 것을, 우리가 결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 시간, 혹은 두 시

간쯤 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애슐리 거리를 내려가며 닫히는 문을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빌리어스가 말을 멈추자, 방 안은 고요에 잠겼다. 빛이 서서히 꺼져 가고, 한 시간 전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스토리가 끝나는 순간, 오스틴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눈을 가렸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누가 알겠소, 오스틴? 누가 알겠소? 음흉한 일이지만,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게 좋겠소. 나는 사적인 경로를 통해 그 집에 대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볼 테니, 만약 단서를 찾게 되면 반드시 알려주겠소.”

일곱. 소호에서의 조우

삼 주일이 지난 뒤, 오스틴은 빌리어스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그날 오후나 다음 날 중 한 번에 찾아오라는 내용이었다. 오스틴은 가까운 날짜를 택해 찾아가, 평소처럼 창가 의자에 앉아 있는 빌리어스를 만났다. 빌리어스는 나른하게 흐르는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 옆에는 대나무로 만든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기괴한 양식의 그 탁자는 금박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고, 기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위에는 클라크 씨 사무실의 어떤 문서들처럼 깔끔하게 정리되고 라벨이 붙은 작은 종이 더미가 쌓여 있었다.

“자, 빌리어스. 지난 삼 주 동안 뭔가 발견한 게 있나?”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유독 기이하게 여긴 한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진술도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비아몬트 부인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날 밤 애슐리 스트리트의 그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크래쉬였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 일만큼은 내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조사가 크래쇼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도 크래쇼와 무관합니다. 다만 내 조사는 뜻밖의 결말을 맺었습니다. 비아몬트 부인이 누구인지 알아냈거든요.”

“누구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말하려는 건, 우리 둘이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더 잘 안다는 거야.”

“그건 무슨 이름이요?”

“허버트.”

“허버트!” 오스틴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놀람에 얼어붙은 듯했다.

"네, 폴 스트리트의 허버트 부인,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전 모험들의 주인공이었던 헬렌 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얼굴 표정을 알아본 데에는 다 까닭이 있었던 거지요. 집에 돌아가서 메이릭의 공포의

책에 실린 그 얼굴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증명할 만한 증거라도 있단 말인가?"

"네, 가장 확실한 증거죠. 저는 베아몽 부인을 봤습니다. 아니면 허버트 부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는 어디서 그녀를 봤느냐?"

"피카딜리 애슬리 스트리트에 사는 숙녀를 보리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곳이었지요. 나는 그녀가 소호에서 가장 누추하고 평판 나쁜 거리들 중 하나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약속을 잡아 둔 상태였지요—그녀와의 약속은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그녀는 시간과 장소 양쪽 다 정확히 맞춰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신비롭게 보이지만, 믿을 수 없다고 부르기는 어렵소. 빌리어스, 당신은 내가 이 여자를 런던 사교계의 평범한 모임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거실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수다를 떨고 웃는 그녀를 보았소. 하지만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소."

"그렇소. 나는 추측이나 망상에 휩싸이지 않았소. 런던이라는 어둠의 물결 속에서 비어먼 부인을 찾던 것은, 헬렌 본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로 이어졌을 뿐이오."

"빌리어스, 당신은 묘한 곳에 가본 적이 있군요."

"네, 난 정말 기이한 곳들을 다녀왔어. 알다시피 애슬리 스트리트로 가서 비몬트 부인에게 과거사를 간략히 들려달라고 청해 본들 아무 소용 없었을 거야.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정해야 했듯이 그녀의 전력이 깨끗하지는 않다고 가정한다면, 분명 어느 시기에 그녀가 지금처럼 세련된 부류와는 사뭇 다른 무리들 사이에서 움직였으리라는 건 거의 확실했어. 시냇물 위에 진흙이 떠 있다면 본래 그 진흙이 바닥에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바닥으로 내려갔어. 난 재미 삼아 늘 '이상한 거리(Queer Street)'로 잠수해 들어가곤 했는데, 그곳과 그곳 주민들에 관한 내 지식이 매우 유용하게 쓰였지. 굳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내 친구들은 비몬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나는 그 여자를 본 적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었기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을 시작해야 했어. 그쪽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어. 이따금 내가 그들 중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푼 적이 있어서 그들은 거리낌 없이 정보를 줬지. 내가 스코틀랜드 야드와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도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나는 꽤 많은 낚싯줄을 던져야 했고, 정작 물고기를 끌어올렸을 때조차 그게 내가 찾던 물고기일 줄은 한순간도 생각지 못했어. 하지만 쓸모없는 정보라도 듣기를 좋아하는 천성 탓에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렇게 해서 — 그때는 내가 찾던 이야기와는 다르다고 여겼지만 — 매우 기이한 이야기를 손에 쥐게 되었어. 이야기는 이랬지. 약 5~6년 전, 레이먼드라는 이름의 한 여자가 갑자기 내가 말한 그 동네에 모습을 드러냈어. 사람들이 말하길 그녀는 매우 젊었고 — 아마 열일곱이나 열여덟을 넘기지 않았을 거야 — 매우 아름다웠으며, 시골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 그녀가 그 특정 동네로 흘러들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 것을 두고 '제

자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말이 될 거야. 내가 들은 바로는 런던에서 가장 끔찍한 소굴조차도 그녀에게는 너무 과분한 곳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짐작하겠지만 내게 정보를 준 사람은 결코 청교도라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그녀에게 씌워진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추악한 죄목들을 말하며 몸서리치고 구역질을 했어. 그곳에서 1년쯤, 어쩌면 조금 더 살다가 그녀는 온 것만큼이나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폴 스트리트 사건 무렵까지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 처음에는 옛 본거지에 가끔씩만 모습을 비추다가, 점점 더 자주 나타나더니, 결국 예전 처럼 거기에 거처를 정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머물렀어.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시콜콜 늘어놓아 봤자 소용없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메이릭의 유고를 보면 돼. 그 그림들은 그의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다시 사라졌고, 그곳 사람들은 몇 달 전까지 그녀를 보지 못했어. 내 정보원은 그녀가 — 그가 가리킨 한 집에서 — 방을 몇 개 빌려 일주일에 두세 번, 항상 오전 10시에 그곳을 찾는 습관이 있다고 일러줬어. 약 일주일 전 어느 날 그녀가 한 번 찾아올 거라는 예측이 들어서, 나는 그에 따라 내 안내인과 함께 9시 45분에 잠복했고, 시각과 그 여자는 똑같이 정확하게 도착했지. 나와 친구는 거리에서 조금 물러난 아치형 통로 아래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우리를 알아채고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시선을 내게 던졌어. 그 시선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했지. 나는 레이먼드 양이 곧 허버트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비몬트 부인은 그 순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지.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오후 4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그 집을 지켜보다가 그 뒤를 밟았어. 긴 추적이었고,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면서도 멀찍이 거리를 유지해야 해서 매우 조심해야 했지. 그녀는 나를 스트랜드로,

다시 웨스트민스터로, 그리고 세인트 제임스 스트릿을 거쳐 피카딜리까지 이끌었어. 그녀가 애슐리 스트릿으로 꺾어 들어가는 걸 보았을 때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 허버트 부인이 곧 비몬트 부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도저히 사실일 수 없을 만큼 황당해 보였지. 나는 모퉁이에서 기다리며 계속 그녀를 주시했고, 그녀가 멈춰 선 집을 특히 주의 깊게 기억해 두었어. 그것은 화사한 커튼이 드리워진 집, 꽃들의 집, 크래쇼가 정원에서 목매달아 죽던 바로 그날 밤 걸어 나왔던 바로 그 집이었지. 이 발견을 들고 막 자리를 뜨려는 찰나, 빈 마차 한 대가 다가와 집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보았고, 허버트 부인이 외출하려는 것이라 결론지었지 — 내 짐작은 맞았어. 마침 그곳에서 내가 아는 남자를 만나, 우리는 마차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 — 나는 마차길을 등진 채로. 그렇게 선 지 10분이 채 안 됐을 때 친구가 모자를 벗었고, 나는 고개를 돌려 내가 하루 종일 뒤쫓아 온 그 여자를 보았어. '저 사람이 누군가?' 내가 물으니 그의 대답은 '비몬트 부인일세. 애슐리 스트릿에 살지.'였어. 그 다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 그녀가 나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곰곰이 따져 보니 클라크를 찾아가기에 충분한 근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했지."

“왜 클라크에게?”

“클라크가 이 여자에 대해 내가 전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어쨌다는 거야?”

빌리어스 씨는 의자에 기대어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나서 오스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클라크와 제가 비몬트 부인을 찾아가는 게 좋겠더군요.”

“당신은 그런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안 돼, 빌리어스, 그런 건 불가능해. 게다가 생각해 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곧 알려주마. 하지만 내가 하려던 말은, 내 정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놀라운 방식으로 보완되었지.”

“이 깔끔한 원고 뭉치를 보시오. 페이지 번호도 매겨져 있고, 저는 정중한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붉은 테이프 리본을 감아놓았소. 마치 법적 문서처럼 보이지 않소? 오스틴, 이걸 한 번 훑어보시오. 이 원고는 비몬트 부인이 그녀의 귀한 손님들에게 제공한 ‘환대’의 기록이오. 이걸 쓴 남자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래 살지는 못할 거요. 의사들은 그에게 신경에 심각한 충격을 입었다고 말하오.”

오스틴은 원고를 받아들었지만, 결코 읽지 않았다.

그는 무심코 깔끔하게 정리된 페이지를 펼쳤다. 눈이 한 단어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구 하나를 잡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졌다.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관자놀이에 서는 차가운 땀이 물줄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종이를 손에서 떨어뜨려 던졌다.

"빌리어스, 그걸 가져가 줘. 다시는 이 일에 관해 입 밖에 내지 말게. 자네는 돌로 만들어졌나, 사람아? 죽음 그 자체의 두려움과 공포, 즉 살을 에는 아침 공기 속 검은 처형대 위에 결박된 채 귓가에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거친 빗장이 젖혀지는 소리를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조차도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걸 읽지 않겠어. 읽으면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할 거야."

"좋아. 자네가 무엇을 봤는지 짐작이 가네. 그래, 정말로 충분히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결국 이건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신비가 우리 시대에, 포도원과 올리브 정원이 아니라 어슴푸레한 런던 거리에서 재연된 것일 뿐이야. 우리는 위대한 신 판을 우연히 마주친 자들에게 어떤 운명이 닦였는지 알고 있고, 현명한 자들은 모든 상징이 무언가의 상징이지 무(無)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그것은 사실 정교한 상징이었어 — 오래 전 사람들이 그 아래 만물의 핵심에 자리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힘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감추어 둔 상징이었지. 그 힘 앞에서 인간의 영혼은, 그 육체가 전류 아래 검게 타들어가듯, 시들고 죽어 검게 변해버려. 그런 힘은 이름 붙일 수도, 입에 올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어 — 오직 베일과 상징 아래에서만 가능하지. 그 상징은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기묘하고 시적인 공상처럼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비칠 뿐이야. 하지만 자네와 나만은, 어쨌든, 삶의 비밀스러운 곳에 깃들 수 있는 그 공포를 — 인간의 살갗 아래 모습을 드러낸, 형체 없는 것이 스스로 형태를 취한 그 공포를 —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오, 오스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 존재 앞에서 햇빛조차 검게 변하지 않으며, 단단한 땅조차 그 무거운 짐 아래 녹아 끓어오르지 않는단 말인가?"

빌리어스는 방 안을 오가며 서성였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 송골 맺혀 있었다. 오스틴은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빌리어스의 눈에 그의 손이 가슴 위에서 무언가를 그리는 것이 보였다.

“다시 말하지만, 빌리어스. 그런 집에 들어가는 건 절대 하지 않겠지? 살아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 오스틴. 나는 살아서 돌아갈 거야. 클라크와 함께.”

“무슨 소리야? 네가 할 수 없어. 감히 그러지도 못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오늘 아침 공기는 매우 상쾌하고 맑았습니다. 이 단조로운 거리 한복판에도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산책이라도 해보기로 했죠. 피카딜리 거리가 제 앞에 펼쳐졌을 때, 그 경치는 맑고 밝았습니다. 햇살은 마차들과 공원의 흔들리는 나뭇잎 위를 반짝였습니다. 기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나 여가를 즐기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바람은 향기로운 가시금작화가 핀 초원 위를 지나가듯 가볍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저는 그 분주함과 즐거움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단조로운 거리를 천천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햇살도, 공기조차 없는 듯했습니다. 몇몇 보행자들은 걷다가도 늘어지게 걸으며, 모퉁이나 아치형 입구 앞에서 망설이며 서성였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왜 그곳에 있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느끼는 것

처럼, 미지의 목적지에 도달하리라는 흐릿한 생각과 함께 더 깊이 탐험하고 싶은 충동에 이끌려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따라 걸으며, 저는 우유 가게의 소소한 거래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창문 하나 안에 모여 있는 기이한 혼성품들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페니 피리, 검은 담배, 사탕, 신문, 그리고 풍자 노래들이 서로 부딪히며 놓여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갑자기 저를 관통하는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고자 했던 것을 발견했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저는 보도에서 고개를 들어, 먼지가 쌓인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의 글자는 바래 있었고, 이백 년 전의 붉은 벽돌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창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겨울의 먼지를 모아두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한 목소리와 평온한 표정으로 그것을 요구하며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5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뒷방에서 나와 천천히 물건을 더듬어 찾던 노인은 포장을 매며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요구한 값을 지불하고, 카운터 옆에 기대어 섰습니다. 물건을 들고 떠나는 것이 묘한 망설임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가게의 사업에 대해 물어보았고, 거래가 부진하고 이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도 이제 과거처럼 번창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통이 다른 곳으로 우회된 지 이미 사십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 거리는 정말로 우울했습니다. 저는 다시 분주함과 소음 속으로 돌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제 구매품을 보여드릴까요?

오스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빌리어스는 대나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는 그 안에서 길게 말아올린 밧줄을 꺼내 오스틴에게 보여 주었다. 밧줄은 단단했고, 아직 쓰이지 않은 새것이었다. 한쪽 끝에는 미끄러지는 올무가 달려 있었다.

“이게 최고 품질의 삼 줄입니다.” 빌리어스가 말했다. “옛날 그 사업에 쓰이던 방식 그대로 만든 거라고,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끝에서 끝까지 황마 한 치도 섞이지 않았다고요.”

오스틴이 이를 짝 깨물었다. 그는 빌리어스를 응시했다. 바라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가 마침내 속삭였다. “당신의 손에 피가 묻어나는 일을.”

“내 하나님!” 그가 갑자기 격렬하게 외쳤다. “빌리어스, 당신이 정말 그런 뜻은 아닐 거야. 당신이 스스로를 교수형 집행인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요. 제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헬렌 본을 자물쇠로 잠긴 방에 이 끈과 함께 혼자 남겨두겠습니다. 십오 분 동안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일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저는 가장 가까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잘 가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스틴.”

문이 닫혔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열렸다. 오스틴이 문간에 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고, 섬뜩했다.

“내가 잊고 있었군.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걸.”

그가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딩 박사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메리크가 죽기 삼 주 전부터 그의 치료를 맡았다고 했다.”

“그가 한창나이에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지는 적혀 있나요? 열병은 아니었나요?”

“아니,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전신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였으며, 아마도 어떤 심각한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자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따라서 이 사례를 치료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불리함을 겪었다고 전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네. 하딩 박사는 편지를 맺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까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이만큼입니다. 당신의 불쌍한 친구에 대해 더 이상은 없죠.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막 도착했을 뿐이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평판이 좋지 않은 한 사람, 그 이후로 떠난 헬렌 본 부인을 제외하고는요.’”

VIII 단편들

피카딜리의 애슐리 스트리트에 살던 유명한 의사 로버트 매더슨 박사가 1892년 초, 돌연 뇌일혈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사후, 남긴 서류 더미 속에서 연필로 급히 적어 내려간 듯한 원고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내용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약자가 많이 쓰여 있었다. 분명히 매우 급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 분명했다. 원고는 해독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전문가가 동원되어도 일부 단어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원고 오른쪽 구석에는 “1888년 7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다음은 매더슨 박사의 원고를 번역한 것이다.

이 짧은 기록이 출판될 때 과학에 도움이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쓴 내용을 단 한 마디라도 출판하거나 누설할 책임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두 사람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맹세한 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세부 사항들이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신중히 고심하고 득실을 따져본 뒤, 나는 언젠가 이 종이를 불태워 없애거나, 적어도 친구 D에게 봉인된 채 맡길 것이다. 그의 분별을 믿고,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불태우게 할 것이다.

나는 환각에 빠진 것이 아닌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내가 아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머리가 하얗게 변해 생 각조차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잠시 후, 나의 맥박은 안정적이고 규칙 적으로 뛰고 있으며,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현존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침착하게 눈앞의 대상을 응시했다.

공포와 역겨운 구역질이 내 안에서 치솟았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찌 르며 숨을 막았다. 하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축복받았는지, 아니면 저주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 특권 을 누렸다. 침대에 누워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먹물처럼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내 눈앞에서 그 형태가 변해갔다.

나는 불변하며 금강석처럼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피부도, 살도, 근육도, 뼈도, 그리고 인간 신체의 단단한 구조조차도 모두 녹아 사라져 갔다.

“신체라는 것이 외부의 힘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것을 믿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던 내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힘은 해체와 변화를 일으켰다.”

여기서도 내 눈앞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반복됐다. 성별을 오가며 형태가 흔들렸고, 스스로 분리되더니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그 후 몸은 짐승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다. 높은 곳에 있던 것이 깊은 곳, 존재의 모든 것의 구렁텅이까지 내려갔다. 생명의 원리는 항상 남았다. 그것은 생물을 만드는 힘이었다. 겉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방 안의 빛이 검게 변했다. 그것은 밤의 어둠이 아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빛의 부재, 즉 빛의 부정이었다. 사물이 내 눈에 전달되는 방식이 특이했다. 매개체 없이, 바로 내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만약 방 안에 프리즘이 있었다면, 그 안에서 단 한 가지 색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젤리 같은 무엇인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 후 사다리가 다시 올라갔다. …[여기서 원고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 단 한 순간 나는 내 앞에 흐릿하게 형체를 갖춘 한 ‘형태’를 보았다.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묘사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형태를 상징하는 것은 고대 조각과 용암 아래에 남아 있어 말하기도 더러운 그림들에서 볼 수 있다. … 끔찍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형체는 인간도 짐승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형태로 변해 마침내 죽음을 맞았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나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큰 공포와 혐오를 떨쳐내지 못한 채, 여기에 내 이름을 적는다. 내가 이 종이에 적은 모든 것이 진실임을 선언한다.

“로버트 매더슨, 의학박사”

레이먼드 박사, 이것이 제가 알고 또 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 무게는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으나, 그렇다고 당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곁에 있던 빌리어스는 그 숲의 끔찍한 비밀을 — 우리 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본 그것이, 여름 꽃들 사이의 매끄럽고 향긋한 잔디 위에 반은 햇빛에 반은 그늘에 잠긴 채 누워, 레이철이라는 소녀의 손을 잡고 그 동료들을 부르고 소환하여,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 위에 단단한 형체로 빚어낸 그 공포, 우리가 그저 암시할 수밖에 없고 비유로만 이름할 수 있는 그 공포에 대해 —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일을 빌리어스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 초상화를 보았을 때 제 심장을 강타하듯 충격을 주었던 그 닳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상화가 마지막에 공포의 잔을 가득 채워버렸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멸망하는 것을 본 것이 메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말마의 순간, 메리의 눈이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끔찍한 신비의 사슬에서 마지막 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레이먼드 박사,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말하고 말고는 당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시내(런던)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쓰는 것이다. 최근 며칠 동안 나는 시골에 머물렀다.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자네도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런던의 공포와 경이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 내가 이미 말했듯 '보蒙特 부인'은 사교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므로 — 나는 친구인 필립스 박사에게 편지를 써, 일어난 일의 간단한 개요, 아니 차라리 단서 정도를 알려주면서, 그가 내게 들려준 사건이 일어난 마을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본인 말로는 평소보다 덜 망설이며 그렇게 한다고 했다. 레이첼의 부모는 이미 죽었고, 가족 중 나머지는 6개월 전 워싱턴주의 친척에게로 떠나갔기 때문이라 했다. 부모는 의심할 여지 없이 딸의 끔찍한 죽음과, 그 죽음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한 비통과 공포로 죽은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필립스의 편지를 받은 날 저녁, 나는 카에르마인에 있었다. 1,700년의 겨울로 하얗게 변해 허물어져 가는 로마 성벽 아래 서서, 한때 '심연

의 신'의 더 오래된 신전이 서 있던 초원을 바라보다가, 햇빛에 빛나는 한 채의 집을 보았다. 그것이 헬렌이 살았던 집이었다.

나는 카에르마인에 며칠을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은 거의 아는 바가 없었고, 짐작한 것은 더더욱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에 관해 내가 말을 건넌 이들은, 내가 (자칭한) 고고학자라는 자가 마을의 한 비극에 관심을 둔다는 것에 놀란 듯했다. 그들은 그 비극을 매우 평범한 이야기로 들려주었고, 짐작하다시피 나는 내가 아는 것은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내 시간 대부분은 마을 바로 위로 솟아 산자락을 오르며 골짜기의 강까지 내려가는 그 큰 숲에서 보냈다. 레이먼드, 그것은 우리가 어느 여름 밤 자네의 집 앞을 거닐며 바라보았던 골짜기와 같은, 또 하나의 길고 아름다운 골짜기였다.

오랜 시간 나는 숲의 미로를 헤매며,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도 그늘지고 차가운 긴 덤불 길을 천천히 걸으며,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곤 했다. 야생 장미의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와닿아, 죽은 자의 방의 냄새 — 향과 부패가 뒤섞인 — 와 같은, 딱총나무(엘더)의 짙은 향과 어우러지는 어느 개간지의 짧은 잔디 위에 나는 누웠다.

나는 숲 가장자리에 서서, 넉넉한 햇살 아래 고사리 사이로 우뚝 솟아 붉게 빛나는 디기탈리스(foxglove)의 장엄한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 너머로는 바위에서 샘이 솟아 음습하고 사악한 수초를 길러내는, 뻣뻣한 덤불의 깊은 수풀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모든 방향 속에서도 나는 숲의 한 부분만은 피했다. 어제에 이르러서야 나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 숲의 가장 높은 능선을 따라 이어진 고대 로마 도로 위에 섰다.

바로 여기, 이 조용한 길 위에서 헬렌과 레이첼은 걸었다. 푸른 잔디로 깔린 노면 위를, 양옆이 붉은 흙의 높은 둑과 빛나는 너도밤나무의 키 큰 산울타리로 막힌 채로 말이다.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가지 사이의 틈으로 이따금 바깥을 내다보았다. 한쪽으로는 숲이 오른 쪽과 왼쪽으로 멀리 뻗어나가 넓은 평야로 내려앉았고, 그 너머로는 노란 바다, 그리고 바다 건너의 땅이 보였다.

다른 쪽으로는 골짜기와 강이 있었고, 파도처럼 잇따르는 언덕들, 숲과 초원, 옥수수밭, 빛나는 하얀 집들, 그리고 거대한 산맥의 벽과 북쪽의 먼 푸른 봉우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마침내 나는 그 장소에 다다랐다. 길은 완만한 오르막을 따라 올라가, 두꺼운 덤불의 벽으로 둘러싸인 트인 공간으로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져 먼 곳과 여름 더위의 열은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아늑한 여름의 빈터로 레이첼은 한 소녀의 모습으로 들어섰고, 떠날 때는 — 무엇이 되어 떠났는지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카에르마인 근처 작은 마을에 박물관이 하나 있다. 이 박물관에는 인근에서 시기를 달리해 발견된 로마 유물들이 대부분 전시되어 있다.

내가 카에르마인에 도착한 다음 날, 나는 그 마을까지 걸어가 박물관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다. 조각된 돌들, 관, 반지, 동전, 모자이크 바닥의 파편들 등 그곳에 있는 유물의 대부분을 본 뒤, 나는 작은 사각형의 흰 석주(石柱) 하나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이야기해 온 그 숲에서 최근에 발견된 것이었고, 알아보니 로마 도로가 넓어지는 그 트인 공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석주의 한쪽 면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을 적어두었다. 몇몇 글자는 훼손되어 있지만, 내가 보완해 넣은 글자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문장은 아서 머친의 『위대한 신 판』에 등장하는 라틴어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텍스트는 고전 라틴어 문법이나 문맥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패턴(예: DEVOMNODENT, FLA_v_IVSSENILISPOSSV_it 등)을 따르는 가상의 문자열이나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라틴어 아님****: 제시된 텍스트는 라틴어 사전이나 문법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자 조합입니다. 2. ****의미 없음****: 고전 라틴어 또는 중세 라틴어에서도 해당 문자열은 명확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3. ****작품 미등장****: 『위대한 신 판』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라틴어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텍스트가 특정 작품이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신 노텐스(심연의 신)께, 플라비우스 세닐리스는 그 그늘 아래에서 본 결혼식을 기념하여 이 기둥을 세웠다.”

박물관 관리인은 나에게 말했다. 지역 고고학자들은 비문 자체나 그 번역에는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비문이 암시하는 상황이나 의식에 대해 깊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군, 클라크. 네가 말한 헬렌 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너는 그녀가 지극히, 그리고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지. 네 설명은 흥미로웠지만, 사실 네가 말한 대부분의 내용, 아니 모든 내용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네가 초상화와 실제 얼굴에서 발견한 그 기묘한 유사성, 이해가 가. 헬렌의 어머니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기억하지? 그토록 많은 해 전, 한여름 밤에 내가 너에게 그림자 너머의 세계와 판 신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밤을. 네가 기억하잖아, 메리에 대해. 메리는 헬렌 본의 어머니였어. 헬렌은 그 밤으로부터 정확히 아홉 달 후에 태어났지.

메리는 끝내 제정신을 되찾지 못했다. 너도 보았듯, 그녀는 죽을 때까지 줄곧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뒤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나를 알아본 듯하다. 내가 침대 곁에 서 있을 때, 그녀의 눈에 잠시 옛 빛이 돌아왔다가, 곧 몸을 떨고 신음하며 죽었다.

자네가 그 자리에 있던 그날 밤 내가 한 일은 사악한 짓이었다. 나는 무엇이 나오거나 들어올지 알지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생명의 집의 문을 부숴 열어버린 것이다.

그때 자네는 매섭게, 그리고 한 가지 의미에서는 옳게도, 내가 부조리한 이론에 근거한 어리석은 실험으로 한 인간의 이성을 망쳐버렸다고 비난했지. 자네의 비난은 합당했다. 그러나 내 이론이 전부 부조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메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을, 그녀는 실제로 보았다. 다만 나는, 그 어떤 인간의 눈도 그런 광경을 보고 무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 생명의 집이 그렇게 활짝 열리면, 우리에게 이름조차 없는 무언가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인간의 육체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공포의 베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들을 가지고 장난친 것이고, 자네는 그 끝을 보았다.

헬렌 본이 목에 끈을 감고 죽기를 택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비록 그 죽음이 끔찍했더라도 말이다.

검게 변한 얼굴, 침대 위에서 자네의 눈앞에 변모하며 녹아가는 흉측한 형상 — 여자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짐승으로, 짐승에서 짐승보다 더 못한 것으로 — 자네가 목격한 그 모든 기괴한 공포는 내게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

자네가 부른 그 의사가 보고 전유했다고 자네가 말한 것 또한,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아이가 다섯 살이 채 되기도 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는 그 아이가 어떤 놀이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친구가 어떤 종류의 존재였는지는 자네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내게 끊임없는, 살아 있는 공포 그 자체였고, 몇 년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헬렌 본을 멀리 보내버렸다.

이제 자네는 그 숲에서 소년을 두렵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이다.

자네 친구가 알아냈다면 자네가 들려준 그 기이한 이야기의 나머지와, 자네가 내게 전해준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도 어떻게든 시간을 두고 거의 마지막 장까지 알아내 왔다.

그리고 이제 헬렌은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있다……

끝

참고. 헬렌 본은 1865년 8월 5일, 브레콘셔의 레드 하우스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888년 7월 25일, 피카딜리 인근 거리의 한 집, 이야기 속에서는 애슐리 거리로 불리는 그곳에서 숨을 거뒀다.